

AJU 60



2020 SPRING

AJU BIANNUAL MAGAZINE

VOLUME 54

60  
AJU  
2020

**AJU  
60th  
ANNIVERSARY**

2020 SPRING — VOLUME 54



COVER ARTIST

**Maxwell McMaster**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맥스웰 맥마스터는 자신이 태어난 캘리포니아의 색과 풍경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캘리포니아의 상징인 뜨거운 태양, 푸른 야자수, 끝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그의キャン버스에서 핑크빛 노을, 일몰의 빛 등 초현실적 풍경으로 재구성된다. 하지만 꿈의 빛깔을 띤 그의キャン버스 위 풍경들은 다시 벽화, 설치 등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현장으로 녹아들며 손에 닿는 아름다움으로 자리잡는다.



## contents

2020 SPRING | AJU BIANNUAL MAGAZINE | VOLUME 54

발행일 2020년 4월 20일(통권 제54호) | 발행처 아주 |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 편집 소효령, 유재원 | 디자인 심지현 | 인쇄 베라웨이시스템즈 | 등록번호 서초 사00076호

### message

## 밝은 지혜를 근간으로, 젊음과 열정을 창조하는 기쁨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고 밝아 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상들은 농사의 준비 작업인 가래질과 밭갈이를 시작했지요. 봄의 따뜻한 바람과 하나, 둘 깨어나는 파릇파릇한 자연은 일상 속 여유와 무뎌 졌던 감성을 일깨워줍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경직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조금씩 여유를 채우면,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에너지도 차츰 생겨나겠지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아주좋은날」도 단장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서 깊이를 구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청춘의 가슴으로 문화, 예술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봄, 생기 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세계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몸과 마음을 모아 애쓰시는 의료진,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ART&LIFE

#### gallery

편견에 도전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  
2

#### knowledge

당신의 캐렌시아는  
어디입니까  
10

#### insight

우주, 무한한 신비를 열다,  
안영숙 & 베라 루빈  
12

#### art

아름다운 순간, 신비로운 이미지,  
맥스웰 맥ма스터  
16

#### 1960

지구 저편의 목소리,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 '에코 1호'  
20



### NOW&MOMENT

#### culture and the city

불교의 짐  
미얀마 만달레이  
22

슬기로운 '집콕'을 위한  
홈 트레이닝  
26

#### creator

한 달에 한 도시, 여행이 일상이 되다,  
김은덕 & 백종민  
30

#### literature and food

소박하지만 호화로웠던 만찬,  
『작은 아씨들』 바닷가재 샐러드  
32

#### scene of object

불확실한 미래,  
<컨테이젼>과 코로나바이러스  
36



### AJU&STYLE

#### 60 aju

밝은 지혜,  
다가올 미래를 밝히다  
40

#### 20 aju

인공지능 없이는 혁신도 없다,  
주식회사 엠티콤  
44

####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8

####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2

#### 2020

포기하지 않는 인류의 미래,  
2020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38

# ART & LIFE

AJU 60th ANNIVERSARY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열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우리는 누구나 젊음의 조건으로 열정을 끔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온도를 조금 낮추고 보다 먼 곳을 바라보려 애쓰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지요. 미술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철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현대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린 영국의 한 미술관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에 훨씬 걸리지 않고 여전히 하얀 식기 위에 순으로 무늬를 그려 넣는 도자기 브랜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속의 철학’이야말로 젊음을 잃지 않는 중요한 조건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무 전신주를 콘크리트 전신주로 바꾸자!”

1960년 아주를 시작하던 창업주의 마음에는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착한 의지와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청년의 열정이 공존했습니다.

지난 60년, 아주가 지속해온 모든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고객,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겠다는 오래된 꿈을 근간 삼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꿈을 펼쳐보았습니다.

창립 60주년,  
60세 이순의 지혜와 20대 청춘의 열정을 되새기며  
아주는 100년 기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TATE MODERN

관람객이 없으면 미술관도 없다,  
편견에 도전하는 미술관

“미술관 운영의 가장 큰 열쇠는 ‘사람’입니다. 작품에 앞서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미술관의 의무죠. 테이트 모던은 개관 아래 사람과 미술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즐거운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을 꾸준히 이행해왔습니다.” 런던의 현대 미술관 테이트 모던이 2020년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었던 뱅크사이드 학력발전소를 재건하며 출발한 시작점부터가 남달랐다. 이처럼 창의적인 공간에서 테이트 모던은 색다른 상상력, 규칙을 깨는 자유로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미술관을 모토로 피카소, 달리, 자코메티, 모네, 앤디 워홀 등 거장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을 선보인다. 이에 더해 개성적 도록의 출판, 미술관 패관 시간을 활용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지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꾸준히 지속하며 ‘현대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서서히 깨뜨린다. 20년을 한결같이 대중과의 소통을 모색한 결과 런던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테이트 모던. 앞으로도 계속될 이들의 창조적 행보를 향해, 대중은 물론 작가들 또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전한다.

테이트 모던은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아이비스 갤러리와 함께 테이트 갤러리 네트워크에 속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관객을 맞이한다.

<https://www.tate.org.uk/visit/tate-modern>



© Vito Acconci / ARS, New York - SACK, Seoul, 2020

# AUSTRIA MURINSEL

물결 위에 화합을 띄우다,  
무수한 만남이 이뤄지는 교량

오스트리아 그라츠는 중세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다. 고풍스러운 건물이 늘어선 풍경이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지만, 과거 무어강을 기준으로 술로스베르크 쪽에는 왕족과 귀족이, 그 반대편에는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던 오랜 역사로 인해 보이지 않는 지역 간 구분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무린젤은 2003년 그라츠가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현대적 교량입니다. 그라츠 출신의 미술 전문 기획자 로베르트 푸肯호퍼 Robert Punkenhofer와 뉴욕의 건축가 비토 아콘치 Vito Acconci는 강 위에 단순한 교량이 아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화합의 공간을 조성해두었죠. 지금 이곳에서는 양쪽 지역 주민은 물론 세계 각지의 여행者까지 자연스레 드나들며 자연스러운 만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강물의 소용돌이를 형상화한 무린젤에는 아담한 야외무대가 조성되어 있어 소규모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이처럼 도시의 전통과 현대, 자연의 풍경과 예술이라는 문화,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무린젤. 이 아름다운 교량이 그라츠를 만남이 있는 도시, 화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젊은 도시로 가꾼다.

무린젤은 일종의 인공 섬으로 강수량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을 플로팅 건축 Floating Architecture이라고 하는데, 2014년 개장한 한강 세빛섬 또한 같은 방식으로 조성했다.

<http://www.somesevit.co.kr/kr/index.do>



# ROYAL COPENHAGEN

일상의 럭셔리, 식기에 담다,  
현대와 호흡하는 장인 정신

'진정한 젊음, 청춘이란 무엇일까?'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도전, 패기, 열정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겠지만 무려 2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만은 이렇게 답한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창조적 혁신의 태도가 영원한 청춘을 가능하게 한다고. "로얄코펜하겐은 왕립 자기 공장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브랜드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의 매일과 맞닿아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시시각각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대의 고객과 자연스레 호흡하는 것을 목표로 과거의 유산을 재해석하며, 스스로의 규정과 법칙을 넘어서고 있지요." 로얄코펜하겐은 순백의 도자기 위를 흐르는 아름다운 청색 무늬, 끝끝내 기계화하지 않고 페인팅 장인을 육성해 수작업으로 무늬를 그려 넣는 장인 정신, 접시 하나, 찻잔 하나로 일상의 작은 순간을 우아하게 변화시킨다는 소박한 철학을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녹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왕실의 독점하에 귀족에게만 판매하던 백자를 일반 시민에게 소개하고자 분투한 과거의 노력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일상의 풍경으로 재현하기 위해 힘쓰는 자세야말로 이들이 시대와 유행을 초월한 명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비법이다.

2020년 로얄코펜하겐의 '블루 메가 컬렉션'이 탄생 20주년을 맞는다. 덴마크 왕실 도자기의 우아함을 살리되 로얄코펜하겐만의 헤리티지인 푸른 꽃문양을 대담하게 확대한 모던 클래식 감성의 식기가 읊봄 우리의 입맛을 돋운다.

<https://www.royalcopenhagen.co.kr/>



# JEJU WAON

제주의 온기를 만나다,  
현대인을 위한 테라피 하우스

“와온이 위치한 제주 조천읍 함덕은 함 씨 할머니가 쌓은 덕 덕분에 항상 좋은 일이 가득했다고 전해지는 마을입니다. 저희는 이 호젓한 동네에 깃든 온정을 일상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울 와牀에 따뜻한 온溫, 따뜻한 곳에 몸을 눕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붙인 와온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는 테라피 하우스다. 와온이 지난 새움은 쉼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진지한 물입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언뜻 보면 남다를 것 없는 숙박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간을 살피다 보면, 제주의 자연 그대로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매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제주의 옛 돌집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원해 마치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 같은 다정함을 연출한 ‘그리팅 하우스’, 자연의 질감이 살아 있는 침실 ‘컴포트 하우스’, 따뜻한 차 한잔의 시간과 스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테라피 하우스’. 오직 휴식과 치유를 위해 설계한 와온은 전통 가옥의 여백에 제주의 자연을 채워 넣음으로써 남다른 온기와 에너지를 전한다.

와온은 쉼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성,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색다른 솔루션을 제안한다. 섬세하게 선별한 향과 차, 입욕제는 기본, 전체 공간의 조도 및 온도 조절 기능을 AI 스피커와 연동해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http://waon.co.kr/>

## 당신의 케렌시아는 어디입니까

글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하루하루가 정글 같은 우리의 일상은 투우장과 뭐가 다를까. 퇴근길, 소진된 나는 만신창이가 된 투우장의 황소, 막 그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황소만큼이나 간절하게 잠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소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싸움을 준비하듯 나도 제대로 쉬어 줘야 또 내일 싸울 수 있다. 케렌시아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그런 공간을 찾는 경험'으로 현대적 의미가 확장되었다.

투우는 격렬하다.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갈린다. 투우에는 소만 죽지 않는다. 소에 밭혀 먼저 말이 죽고, 자칫하면 투우사도 죽는다. 마타도르 즉 투우사의 날카로운 칼이 단번에 황소의 동맥을 잘라 버리지 못할 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투우에 관해 쓴 에세이『오후의 죽음』에서 투우를 '격렬한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황소는 마타도르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전 이미 두 번의 싸움을 거친다. 피카도르의 창과 반데리예로의 착살이 곳곳에 꽂혀 몸은 이미 별집이 되었다. 기력은 빠졌고, 다리는 풀렸다. 흐릿해진 망막 너머로 긴 칼을 든 마타도르가 막대기에 붉은 천을 감은 물레타를 훔드는 것이 보인다. 성을 푸드득푸드득 내던 황소가 불현듯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경기장 한구석으로 달려간다. 경기장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전의를 다지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죽음을 직감한 것일까. 땀과 피로 범벅이 된 황소가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곳, 이곳을 케렌시아 Querencia라 부른다.

케렌시아는 '바라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동사 'Quere 케레르'에서 파생된 단어다. 투우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피난처, 인식처, 귀소 본능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졌다.

케렌시아는 소마다 다르다. 소가 가고 싶어 하는 린 인의 장소라면 모두 케렌시아가 된다. 헤밍웨이의『오후의 죽음』을 보자.

"대부분의 소들은 자신이 들어온 문과 투우장의 벽을 케렌시아로 삼는다. 그곳이 가장 낮익기 때

문이다. 등에 기댈 것이 있어서 뒤쪽에서 공격당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안심이 되는지도 모른다. 어떤 소는 투우 중에 자신이 말을 죽였던 곳을 케렌시아로 삼기도 한다. 자신이 성공을 거둔 자랑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무더운 날이라면 축축하고 서늘한 모래밭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투우사를 한번 들이받았던 곳을 택하기도 한다. 이유 없이 링의 한 곳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투우장의 소들처럼, 개개인의 케렌시아는 다르다. 낮익거나 안락한 곳, 혹은 성취의 경험을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의 케렌시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마이 스위트 홈'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내 집은 재충전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다. 눈이 감기는 것을 참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지는 그 순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함이 있다. 불 커진 자신의 아파트 창문이 보이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간다는 한 가장의 말만큼 진하게 느껴지는 케렌시아가 어디 있을까.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한 공기 나눌 수 있는 오붓한

공간,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여기서 출발한다. 굳이 내 집이 아니라도 괜찮다. 퇴근길 한잔이 생각나 들르는 동네 포장마차도 케렌시아가 될 수 있다. 여유 있게 아메리카노 한잔을 즐기기 제격인

동네 카페나 주말 아침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마을 베이커리도 꽤 괜찮은 나만의 아지트다.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기 안성맞춤인 골목길 작은 미술관, 나홀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심야영화관, LP판으로 가득 찬 더께 묻은 반지하 바는 도심 속 케렌시아로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출퇴근길, 매일 타는 버스에도 케렌시아는 있다. 맨 뒷줄 모서리 좌석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눈 감고 편안히 갈 수 있는 명당 중 명당이다.

짬을 내 휴식을 취하기 그만인 패스트힐링 Fast Healing 케렌시아도 있다. 코인노래방, 수면 카페, 암마 카페 등 1인 휴식 공간은 점심을 짚고서라도 찾고 싶은 직장인들의 케렌시아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이나 나의 추억이 서린 동네도 케렌시아가 될 수 있다. 나에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케렌시아다.

더 편히 쉬고 싶은 만큼 나만의 장소를 꾸미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식물로 실내를 가꾸어 공기 정화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함께 얻는 나만의 숲, '플랜테리어 Planterior'가 주목받는 이유다. 사무실 책상 위를 예쁘게 장식하는 '데스크테리어 Deskterior'도 생겨났다.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회사 사무실을 자신이 취향에 맞게 꾸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다. 무드 조명, 향수, 컴퓨터 주변 기기 등 데스

크테리어 용품 매출액도 급증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2017년 설문 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데스크테리어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마케터들은 이 같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케렌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아파트가 부쩍 많아졌다. 리조트에도 '케렌시아'가 붙는다. 케렌시아 스타일은 고급스러울 때가 많다. 은은한 조명에 편안한 안락의자, 부드러운 러그와 향기로운 향초는 필수 아이템이다. 고급 소파와 침구, 고가의 침대 판매액도 빠르게 늘면서 코쿠닝족이 주거 문화를 주도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쿠닝족이란 외출을 자제하고 자신의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누에가 나비가 되기 전에 자신의 고치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코쿠닝 Cocooning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다. 코쿠닝족은 영화도, 밥도, 잠자리도 모두 집에서 해결한다. 집이 영화관이 되었다가 식당이 되었다가 호텔도 되는 셈이다.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밖으로 나가기보다 '럭셔리한 방콕'을 한다는 의미로 스테이케이션 혹은 훌강스라는 말도 생겨났다.

예술 분야도 케렌시아를 비켜날 수 없다. 관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명상용 그림 혹은 캘리그라피가 최근 인기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색감과 구도, 글귀가 단연 돋보인다.

초연결 시대, SNS에서 많은 것이 이뤄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도 케렌시아가 생겨났다. 주요 대학과 국회의 '대나무숲', 직장인을 위한 '블라인드 앱' 등은 계급장을 떼고 익명으로 무엇이든 말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의 케렌시아다. 업무 지시도, 모임 알림도, 고백도 메신저나 이메일로 이뤄지는 2020년 대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케렌시아가 단순히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해외여행도 따지고 보면 나만의 케렌시아다. 번잡한 해외가 싫다면 호캉스도 훌륭한 케렌시아가 된다. 하지만 '휴식 같은 친구'만 한 케렌시아가 있을까.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슬리퍼를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내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서도 말이 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를 시인 유안진은 '자란지교'라고 표현했다.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다른 케렌시아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케렌시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헤밍웨이는 케렌시아에서 쉬고 있는 소를 투우사가 공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소는 철저한 방어 상태이기 때문에 선불리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반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가 케렌시아로 갈 때 투우사는 꽂꽂이 서서 소가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때는 소가 아무리 가까이 지나가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현대

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만의 케렌시아는 소중하다. 헤밍웨이의 케렌시아는 '칵테일'이었다. 헤밍웨이는 모히토와 압생트를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주인 압생트에 고급 술인 샴페인을 섞어 만든 이 칵테일은 '오후의 죽음'이라고 부른다. 일본 만화『바텐더』에서 주인공인 사사쿠라 류는 "샴페인은 삶, 압생트는 죽음"이라고 비유했다. 삶과 죽음이 혼재된 술, 그게 '오후의 죽음'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키워스트에는 헤밍웨이가 마을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던 '슬리피 조'가 있다. 이곳에서 해 질 무렵 '오후의 죽음' 한잔을 마시면서 헤밍웨이는 케렌시아를 음미하지 않았을까.

스페인 사람들은 여전히 투우를 사랑한다. 마타도르가 칼로 소를 죽이는 마지막 순간 관객들은 열광 한다. 그들은 이때를 '진리의 순간'이라고 부르며 숭고한 의미를 부여한다. 투우는 스페인 사람들의 케렌시아인 셈이다. 하지만 투우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죄 없는 소를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는 2012년 투우를 금지했지만 2016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투우는 문화유산의 하나"라며 반박했다. 10년 뒤에도 투우가 존재할지, 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투우는 멈춰도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불멸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정글자본주의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가 숨을 고르지 않는 이상 말이다.



우주,

## 무한한 신비를 엽다

400여 년 전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밤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다. 그전까지 관측되지 않던 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출현해 대단히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 지금의 학자들은 이것이 초신성 현상이라는 것을 안다. 초신성은 갑자기 번쩍거리는 것이 신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 중요한 현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들을 연구하기 위해 초신성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다.

글 | 곽재식 일러스트 | 민지홍

곽재식 공학박사, 소설가. KAIST를 졸업하고 지금은 화학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다수의 장편 소설을 비롯해 인공지능 논픽션과 인문학 책을 출간했다. 「미스테리아」, 「과학동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쓰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Young-sook Ahn

천문 역사 연구 1세대로 1978년 한국천문연구원에 들어간 안영숙의 본래 업무는 달력을 만드는 것이었다. 연세대 천문 우주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충북대 천문우주과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해 조선 시대 달력 역법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때만 해도 천문 역사 류를 읽고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사상에 따라 내용을 해석하는 실력과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 계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천문 역사 연구가 옛 문헌을 뒤적이는데 그치는 게 아님을 알게 한다.

### 한국 천문 역사 연구와 함께하다

안영숙

된 별자리 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3D 스캐닝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이런 연구를 해내려면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옛날 방식의 한문으로 된 역사 자료를 읽고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사상에 따라 내용을 해석하는 실력과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 계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천문 역사 연구가 옛 문헌을 뒤적이는데 그치는 게 아님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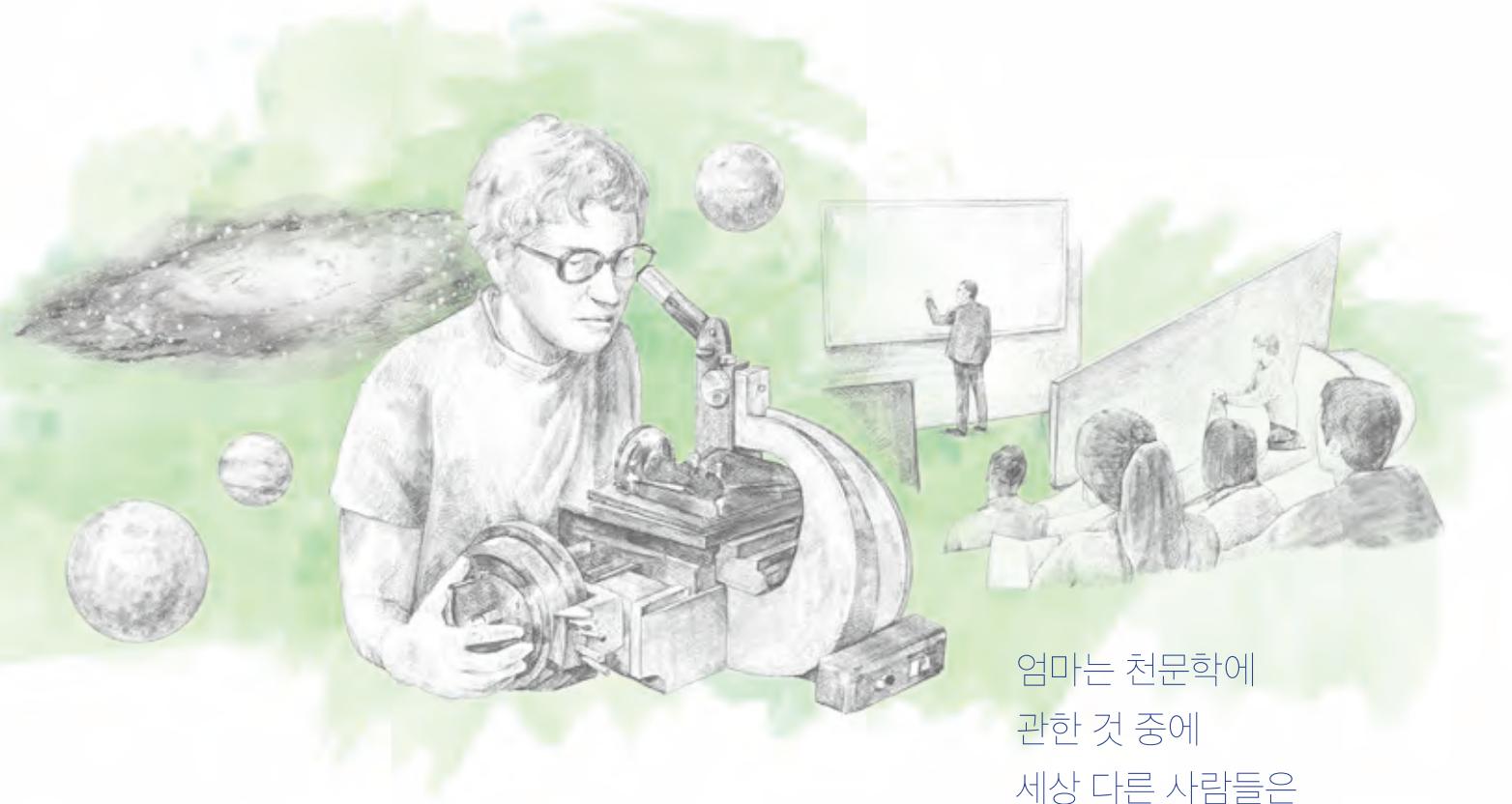
Vera Rubin

어린 시절 루빈은 끝도 없이 밤하늘을 보며 누워 있는 것을 좋아했다. 북쪽 창문을 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긴 밤을 보낼 때, 루빈은 하늘에 북극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별들이 그 주위를 천천히 돋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출산과 육아를 도맡는 동안 경력이 단절됐다. 그러나 루빈은 포기하지 않았다. 코넬대에서 석사를 마친 뒤 네 아이를 키우며 1954년 조지타운

### 미지의 우주 암흑 물질을 증명하다

비라 루빈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카네기 연구소에 들어가 우주의 모습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암흑 물질Dark Matter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공을 세웠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천체 사이를 메우는 미지의 물질이다. 1930년대부터 암흑 물질 가설이 나왔으나 1970년대에 루빈이 물리학자 켄트 포드와 공동 연구로 존재를 입증해냈다. 루빈의 발견은 우주를 관측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을 가져왔다.



엄마는 천문학에  
관한 것 중에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

#### 우리는 무엇으로 이뤄져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4년 10월 17일,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밤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다. 그전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출현해 빛나고 있었던 것. 게다가 그 별의 밝기가 대단히 밝았다. 금성과 같이 지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들을 제외하면 그보다 밝은 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지금은 이것이 초신성 현상이라는 사실을 학자들은 알고 있다. 초신성은 오래된 별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만약 지구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어두웠던 별이 폭발을 일으켜 갑자기 밝아지는 경우라면 마치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별이라는 뜻으로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갑자기 번쩍거리는 것이 신기하다는 점 말고도 초신성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신성 폭발의 강력한 힘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던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현상에 의해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이 생겨날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흙, 모래, 돌, 온갖 동물과 식물이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 물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초신성 덕분에 그렇게 다양한 물질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즉, 까마득한 옛날, 어느 초신성이 폭발했는데 그 잔해가 이리저리 우주를 떠돌다가 한 군데에 뭉쳐서 생긴 것이 바로 지구다.

초신성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현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초신성에 주목한 사람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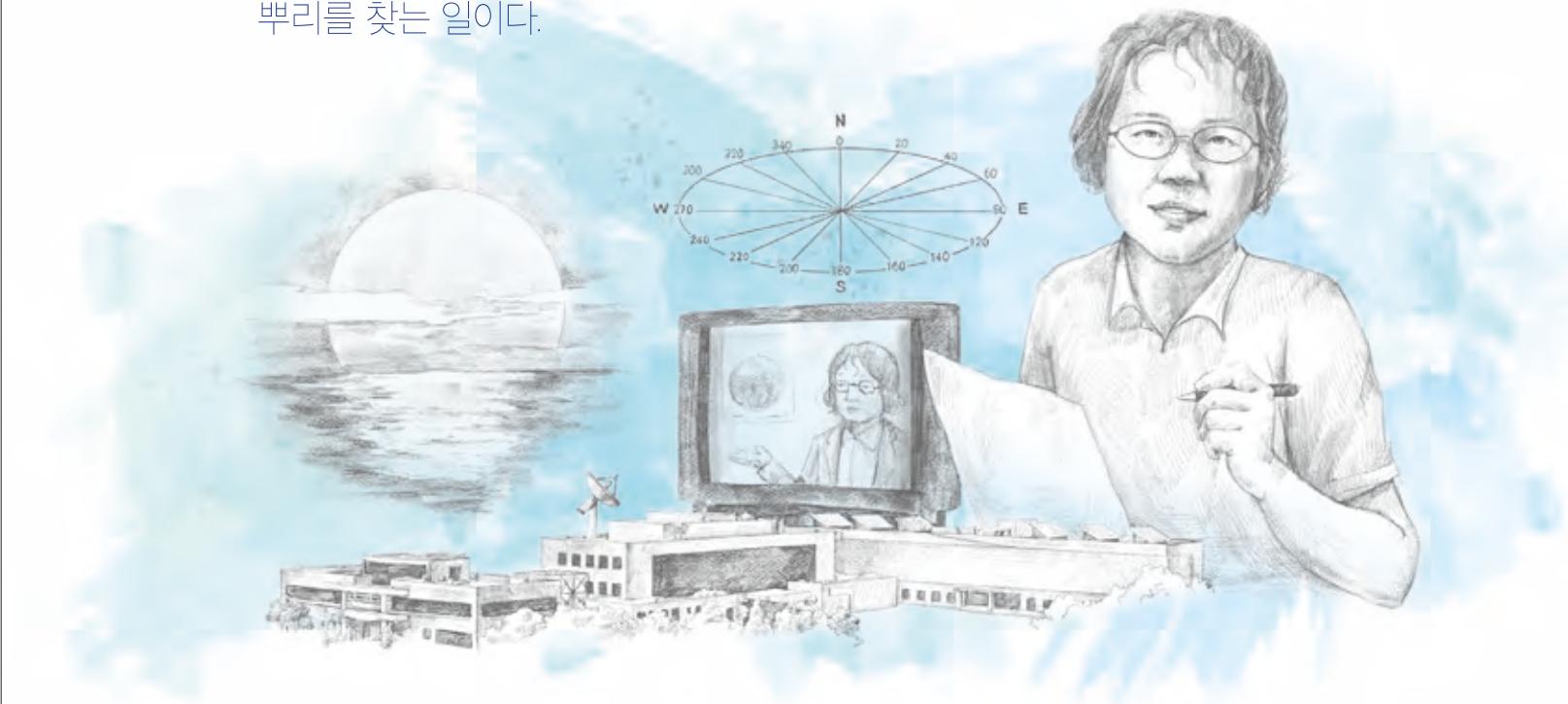
#### 우주와 은하계를 계산하다

베라 루빈은 1970년대에 특히 활발히 활동한 미국의 천문학자였다. 어릴 적부터 별 보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루빈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천문학을 연구했다. 도전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열성적인 학생이었지만 자녀 넷을 낳아 기르는 그녀가 육아의 책임과 부담을 도맡으면서 천문학 공부를 계속해나갈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의 고민이나 학교나 국가의 배려도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욱 길을 찾기 어려웠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구했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 학교로 가서 야간 실험을 하고 야간 강좌를 들으며 공부를 이어갔다.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직장을 구해 마침내 천문 관측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학자들 사이에서 과거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미지의 수수께끼 같은 물질이 우주에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학설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학자들은 그런 물질을 알 수 없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다. 암흑 물질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며, 전기와 자기를 측정하는 기존의 실험 방법으로는 측정조차 불가한 물질이었다. 그렇다 보니 암흑 물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서도 정말로 그런 것이 있는지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1970년대의 루빈은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다.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휘몰아치고 있으므로 당시의 지식에 따라 몇 가지 계산을 해보면, 은하계의 중심부보다 바깥쪽 부분이 돌아가는 속도가 훨씬 느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루빈

천문학 하면 우주나  
망원경을 먼저 떠올리지만  
천문 역사 연구는  
뿌리를 찾는 일이다.



이 관찰해보니, 은하계의 바깥 부분이 돌아가는 속도가 계산만큼 느리지 않았다. 측정해보는 쪽은 은하계의 바깥쪽 부분이 돌아가는 속도는 그 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그렇다면 정말로 알 수 없는 물질이 달라붙어 있다는 상상이 사실이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루빈의 연구 결과는 세상에 암흑 물질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사람들은 훨씬 더 진지하게 암흑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 과학의 빠른 발전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밝혀지기 직전 아닌가 싶었던 시점에, 루빈의 발견 덕분에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던 물질이 널려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한국 천문 역사를 해독하다

이후 암흑 물질의 성질과 정체를 밝혀내려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시 초신성으로 돌아간다. 초신성 출현 때 나타나는 중성미자 방출 등의 현상이 암흑 물질의 성질을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학자들은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에 대한 400여 년 전의 모든 기록을 최대한 발굴해 살살이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목받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조선 시대의 별 관측 기록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 음력 9월 21일부터 언급된 기록은 다른 케플러가 본 초신성에 대한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였다. 이런 와중에 하늘에 갑자기 못 보던 별이 등장하자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의 징조는 아닌가 싶어 조선인들은 대단히 걱정했다. 자연히 초신성에 대한 관찰과 기록도 자세하게 남겼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사람이 맨 눈으로 가까운 초신성을 본 사건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세밀한 측에 속한다.

이런 연구를 해내려면, 우선 조선의 옛 기록에 나온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제도에 따라 여려 차례 바뀌었다. 따라서 수백 년 전의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정확히 계산해내려면 조선에서 사용하던 옛 달력 체계는 물론이고 유럽의 달력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을 계산해서 서로 바꾸는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게다가 밤하늘의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과 별자리의 이름 또한 조선에서 사용하던 것과 과거 유럽에서 사용하던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만 기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이름이 바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안영숙이다. 그녀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사해 지금도 활동 중인 학자로, 역사 천문학 연구자로는 손꼽히는 인물이다. 천문학계에 여성 연구자가 부족하던 시기부터 활발히 활동했으며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시일이 지나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점은 공교롭게도 베라 루빈과도 닮았다.

안영숙은 매년 대한민국 공식 달력을 제작하면서 양력과 음력을 맞게 표시하는 일을 비롯해 조선 시대의 천문학 서적을 해석하는 연구, 별과 행성에 대한 삼국시대 기록의 의미와 정확성을 판별하는 연구까지 서로 연결된 다양한 연구 팀에서 활약했다. 친숙하게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오는 추석에 또는 달이 정말로 가장 밝은 달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일부터, 복잡하게는 수백 년 전 조선 시대 기록 속의 날짜를 입력하면 바로 유럽에서 사용하던 양력 날짜로 변환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까지 그가 참여한 연구는 넓고도 깊다.

# Maxwell Mcmaster

경계를 넘어,  
맥스웰 맥ма스터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나 LA에서 자랐습니다. 당신 작업의 영감이 된 LA는 당신에게 어떤 도시인가요?

LA는 놀라운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끝없는 가능성과 영감을 발견하고자 하는 꿈을 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들을 위한 것들이 모두 있습니다. LA는 다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곳입니다. LA의 혁신과 영향력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이곳의 거대한 영향력을 잘 실감하지 못했어요. 비록 LA와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저 자신이야말로 이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파도와 구름, 꽃과 나무 등 당신의 작품 속 오브제는 당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유년 시절과 관계가 있나요?

작품 속 요소는 제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합쳐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작품은 제 인생에서 직접 가져온 것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창작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나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의 작품에서는 형태뿐 아니라 색의 힘도 큅니다. “색을 가지고 노는 작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작품에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언제나 색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작품에서 색에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색은 작업을 할 때 가장 큰 관심사죠. 작품 속 색이 관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색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요. 제가 창조한 색들이 그들을 기쁘거나 평온하거나 균형 잡힌 느낌이 들게 만들 때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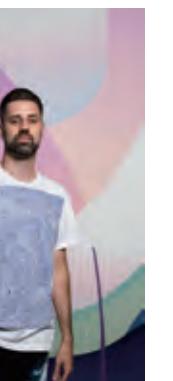
당신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현실엔 없는 유토피아 같기도 하고요. 작품을 구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는 항상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요. 자연 자체가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이기 때문이죠.

당신 작업에 영감을 준 인물이나 장소가 있나요? 특정한 인물이나 장소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것보

특유의 초현실적인 스타일로 커다란 캔버스와 벽 위에 평화와 고요를 그려내는 아티스트 맥스웰 맥마스터.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나 LA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맥마스터는 그가 자란 고향의 자연, 여행과 일상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만의 색과 오브젝트로 표현해낸다. 추상적이고도 미니멀한 그의 작품은 언뜻 보기엔 심플하지만 깊이 들어다보면 그 안의 복잡하고도 놀라운 세계가 드러난다.

인터뷰어 | 김선녀



**Maxwell McMaster**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위치한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을 졸업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현재 LA에 베이스를 두고, '골든 스테йт'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특유의 낭만과 미학을 포착한다.

→  
ACE 호텔 LA 카페 앞에서.



다는 대부분 제 마음 속에서 생겨나죠. 저는 언제나 머릿속에 여러 영감을 모아두곤 합니다.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제가 스스로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작품에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때때로 그런 것이 제겐 명확하지 않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적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서야 저도 그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미술 작품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공감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작품처럼요. 다수의 작품에서 당신이 은유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평화와 사랑이에요. 이런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작업은 아니지만, 어떤 정서와 의도는 언제나 작품 속에 존재하죠. 동정, 친절, 공감 같은 것이요.

페인팅, 드로잉, 벽화,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하지만, 모든 작업에는 공통된 당신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술가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맥스웰만의 스타일이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장소와 그곳에서 받은 영감이나 영향력이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그때의 삶과 관심사에 따라 작업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최근 음악에 다시 빠졌어요. 아버지가 뮤지션이어서 어렸을 때 항상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제 관심사 안에서 예술과 음악은 늘 서로 대화하고 있었고, 요즘 이 둘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순수 예술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해외에서 마친 전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꽃 Flowers'이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는 페인팅, 드로잉 그리고 사진 기법을 통합해 꽃을 탐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페인팅 기법에 다른 미디어를 조합해보고 이 프로세스가 저를 어디로 이끄지는 확인하고 싶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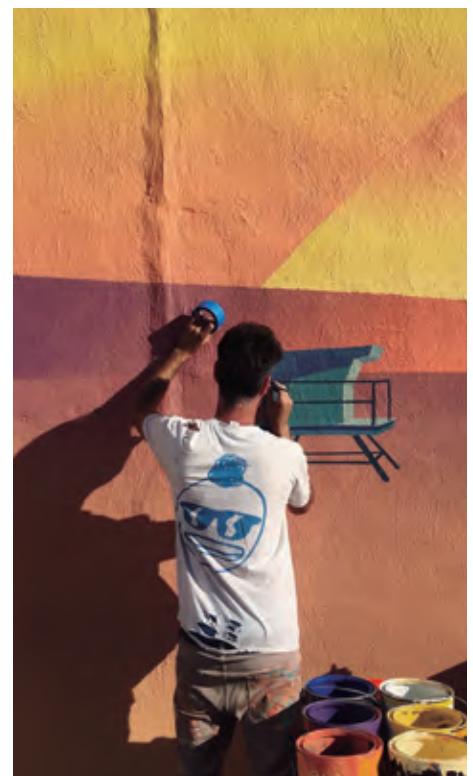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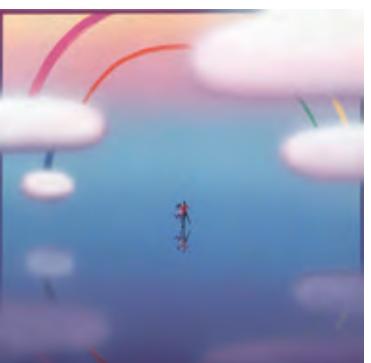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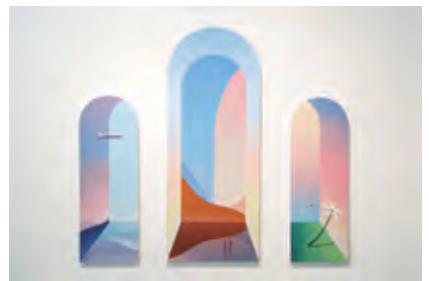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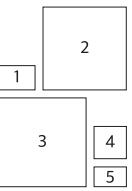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진화 Evolve'라고 했습니다. 아마 모든 아티스트의 바람이**

작업물이 계속해서 독창적이길 바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제 작품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한 좀 더 추상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왔는데, 이 작업이 제 작품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과 다른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이건 맥스웰 맥마스터 작품"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항상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스스로에게 주지요. 곧 새로운 무언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저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진화 또는 발전은 무엇인가요?**

작업물이 계속해서 독창적이길 바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제 작품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한 좀 더 추상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왔는데, 이 작업이 제 작품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과 다른 작품을 창작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이건 맥스웰 맥마스터 작품"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항상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스스로에게 주지요. 곧 새로운 무언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저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Let's Make Love in the Summertime | 2. Together
3. Love Explosion | 4. Dance | 5. It's A New Dawn, It's A New Wave



#### ◎ Artwork Keywords

##### Golden State of Mind

캘리포니아는 풍요로운 색으로 모든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다. 북쪽 해안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남동부 사막의 색깔은 전혀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맥마스터는 캘리포니아 색양의 색채와 해안의 풍경을 통해 집과 공간에 대한 잠재의식을 표현한다.

##### Beautiful Nature

맥마스터의 생생한 컬러와 몽환적 색감은 캘리포니아 골든 스테이트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영감을 얻은 결과물이다. 그는 색을 고를 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왔다 갔다 걷고, 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감을 작품에 녹인다.

##### Mother of the Earth

그는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여 그가 만든 색이 작품 속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사물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살핀다. 그의 화려한 파스텔 색감은 프랑스 초현실주의 화가 앙리 마티스에게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았지만, 고유의 감각은 독보적이다.



# 1960

지구 저편의 목소리,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  
에코 1호<sup>1A</sup>**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원작 소설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클라크는 1945년 한 학술지에 인공위성을 통신 종계용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최초로 통신위성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5년 후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은 1960년 8월 12일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인 에코 1호<sup>1A</sup>를 쏘아 올렸다. 당시 에코 1호는 담배 포장용 셀로판지 절반 두께의 마일러라고 불리는 폴리에스터로 만든 얇은 기구였다. 아코디언처럼 접힌 기구가 우주에서 태양열을 받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지구를 둘며 신호를 반사하는 방식이었다. 에코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자 미리 녹음해 전송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메시지가 위성을 거쳐 방송되었다. 크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이후 1963년 멜스타 1호가 미국과 유럽 간의 TV 화면 전송과 다중 전화 신호 전송에 성공하면서 위성에 의한 세계 통신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 NOW & MOVEMENT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흘러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괴테

우리가 봄을 청춘에 비유하는 이유는 만물이 활기차게 생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 몸과 마음을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을 수도 있지요. 혹시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여행지에서 한 달 살아 보기,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음식을 실제로 요리해 보기 등. 사소한 바람을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봄의 생동감, 그 짊음의 에너지는 주어졌을 때 아닌, 우리가 직접 창조해낼 때 더욱 빛나는 법이니까요.

# 불교의 심장, 미얀마 만달레이



미얀마는 태국과 중국의 접경 국가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 하지만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 아는 것은 한정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라는 국가명보다는 옛 이름인 '버마'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영국 식민 경찰로 이 땅에 머물면서 「버마 사설」을 썼고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닫혔던 문 안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 북부에 위치한 만달레이가 바로 책의 배경이다.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수도이자 오랜 시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으나 그보다 중요한 과거는 불교 문화의 성지라는 점이다.

글, 사진 | 김은덕, 백종민 여행작가

## 붓다의 도시, 만달레이

만달레이는 석가모니가 제자 아난존자 阿難尊者와 함께 다녀갔다는 전설을 품고 있다. 석가모니는 어느 날 만달레이 언덕에 올랐는데 도시를 굽어보며 2500년 뒤에 위대한 도시가 세워질 거라는 예언을 했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예언을 믿는 이들 덕분인지 언덕 아래에 파고다탑만 730개에 달한다. 이제는 석가모니가 올랐던 언덕에서 미얀마 스님들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여행자를 불러들이는 강렬한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는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 승려들의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탁발은 불교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승려들은 돈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탁발을 통해 입고, 먹고, 자는 걸 해결한다. 승려가 그릇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안에 밥도 퍼주고 음식도 넣어준다. 모두 물욕을 버리기 위한 수행이다.

만달레이 사원의 마당에는 사리탑이 자리한다.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믿고 다가가니 안타깝게도 이런 문구가 써 있다. 'LADIES ARE NOT ALLOWED TO ENTER.' 한마디로 '여성 출입금지'다. 더러 부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사진 촬영도 금지하는 사원이 있는데 여성 여행자라면 옛날식 교리에 집착하는 이 문구에 주의가 필요하다.

## 만달레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 우베인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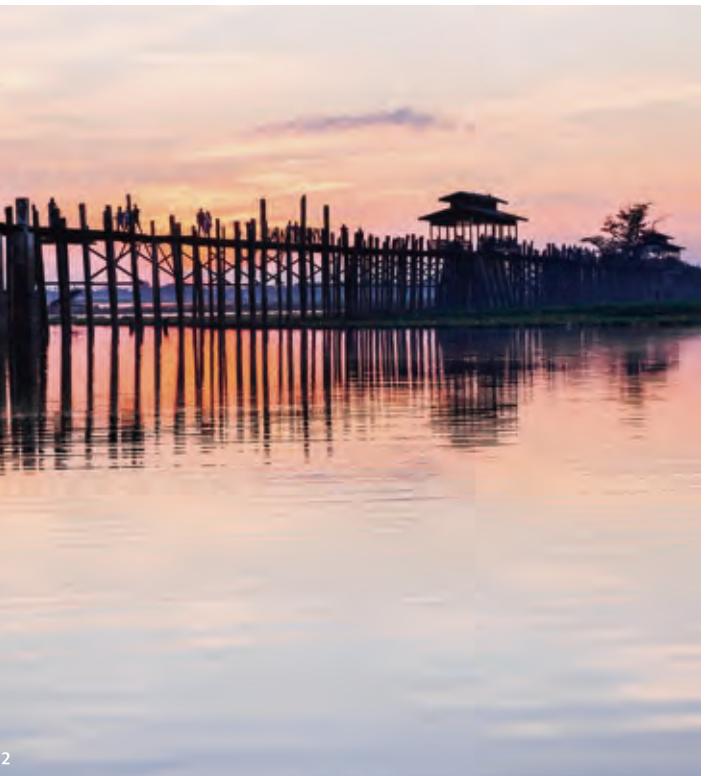
경건하고 신비로운 도시의 역사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문화의 향기가 궁금해 이곳 만달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했다.『오리엔탈리즘』의 저자 애드워드 사이드는 '동양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서양 중심적 지식'이라고 '오리엔탈리즘'을 간명하게 정의한 바 있다. 만달레이는 서양인들이 동양에서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의 총체를 만날 수 있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영국군에게 점령당한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수도이자 금빛으로 뒤덮인 불교 유적의 평화로운 이미지, 때 묻지 않은 순박한 사람들, 우베인 다리의 목가적인 풍경이 이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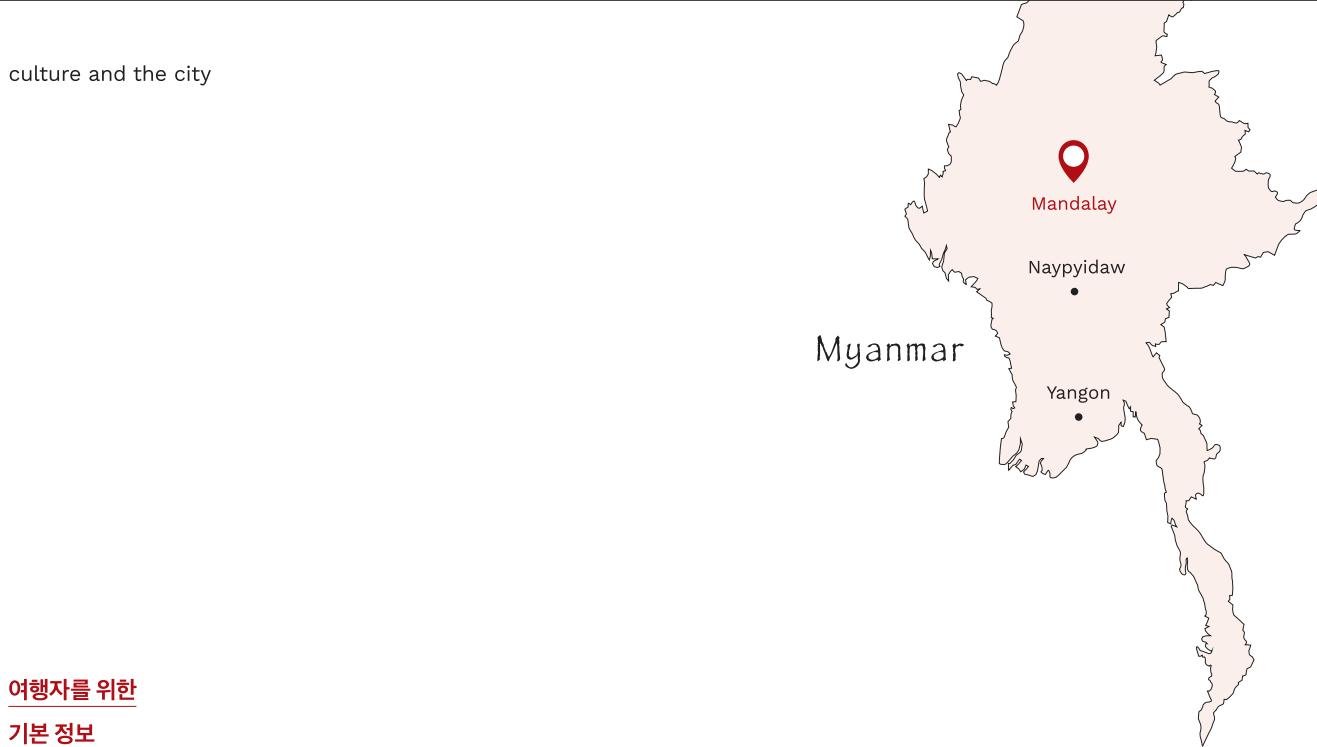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목조 다리인 우베인 다리는 1850년 당시 왕궁을 짓고 남은 티크 나무로 세웠다. 왕궁을 지으려고 선택한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 목재일지 약 200년 동안 이 다리를 건넜을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호수 위에 세운 우베인 다리는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 일을 마친 어른들 그리고 탁발하는 승려까지 다리 위를 오가는 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석양 아래 다리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워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1  
미얀마 불교 문화와 신앙의 중심지인  
사원과 내부의 불상



2  
석양이 빛게 물든 호수와 물 그림자를  
만들며 길게 이어진 우베인 다리



**여행자를 위한****기본 정보**

만달레이로 가는 방법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미얀마의 수도 양곤을 오가는 직항편을 이용한다. 양곤에 도착한 뒤 국내선 비행기로 환승해 1시간쯤 가거나 장거리 버스를 타고 9시간 정도 달리면 된다. 만달레이는 한겨울에도 푸르른 풀밭으로 가득한 축복받은 땅이다. 겨울은 초가을 날씨처럼 하늘이 푸르고 바람이 선선해 여행 적기다. 다른 기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고, 특히 6~10월은 우기임을 기억하자.

만달레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조품을 거래하는 도매 시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만달레이를 거쳐 내수 시장에 판매된다. 째조시장은 만달레이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현지인들의 일상을 구석구석 볼 수 있다. 째조시장에 가면 미얀마의 전통 의상인 론지를 입은 남자들과 천연 선크림인 황톳빛의 ‘타나카’를 연지 곤지처럼 바른 여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 발길을 잡아끄는 다양한 군것질거리가 있다. 그중 특이한 건 바나나를 줄기째 파는 장면인데 워낙 싸고 많이 먹으니까 노랗게 익은 것 대신 싱싱한 초록 바나나를 사서 오래 두고 먹는다.

현지 물가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텔, 식당, 여행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바가지가 심한 편이다. 도시 내 이동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현지인은 주로 트럭을 개조한 버스나 오토바이크, 삼륜 자전거를 탄다. 삼륜 자전거 인력거인 ‘싸이카’는 미얀마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다. 싸이카는 ‘사이드 카’의 줄임말인데 자전거 옆 즉 사이드에 의자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주로 현지인이 많이 타는 교통수단이지만 여행자들도 경험 삼아 한 번씩 승차해본다. 하지만 거리에 맞게 요금을 홍정해야 해서 어수룩한 여행자들은 이용이 쉽지 않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여행자도 오토바이크 운전이 가능하나 교통경찰의 단속이 무척 심하다.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다 각기 다른 세 명의 경찰관에게 벌금을 냈다. 익숙하지 않은 교통 체계에 당황하고 실수했기 때문이다.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서 길을 잘 모르는 여행자는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스쿠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현지인에게 이 경우에 대해 묻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만달레이는 노천 식당도 흔하고 길가에서 밥을 먹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길거리 식당은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목욕탕에서 볼 법한 낮은 의자를 준비해놨다. 쪼그려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현지인들과 어울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다. 이렇게 먹다 보면 가끔은 ‘으, 무슨 맛이 이래’ 할 정도로 낯선 음식을 만나기도 한다. 실제로 기름이 똑똑 흐르는 음식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듦다. 하지만 더운 나라는 음식이 쉽게 상하니까 튀김 요리를 많이 해 먹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른다.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아! 내게 낯선 것뿐이지 맛이 없는 음식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듦다. 그제서야 만달레이의 기름진 음식에도 익숙해진다.

**김은덕 × 백종민 여행작가**

2012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3년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다. 한 도시에서 한 달간 머무는, 이른바 ‘한 달 살기’라고 하는 느린 여행이었다. 유럽, 남미, 아시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발견했다. 2015년 2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글 쓰며 여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만달레이는 미얀마 불교의 중심지로

파고다수가 730개나 있다. 그만큼

불교 문화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도시다.

금빛으로 뒤덮인 불교 유적의 평화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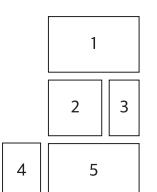
이미지, 때 묻지 않은 순박한 사람들,

우베인 다리의 목가적인 풍경은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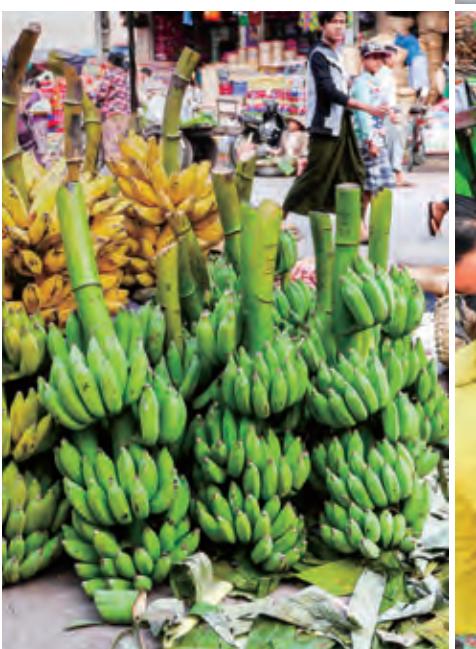
겸허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탁발 공양도

여행자들을 모여들게 한다.



1. 천연 선크림 타나카를 바르는 모습 | 2. 서민들의 교통 수단, 2인승 자전거 | 3. 전통 복장인 론지를 입고 학교 가는 학생들 | 4. 줄기째 파는 바나나 | 5. 시장 내 노점 식당의 흔한 풍경





## Training

슬기로운 ‘집콕’을 위한,

Home

NOW &amp; MOMENT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먹기를 즐기는  
이가 느는 가운데 혼자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도 트렌드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홈 트레이닝이 건강을 지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혼자서, 혹은 기족과 함께 간단히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전까지 기초체력을  
다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홈 트레이닝만으로도 어렵게만 생각했던  
운동 습관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글 | 강호문 일러스트 | 민지홍



### 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하루, 홈트의 진화

다이어트 관련 검색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유튜브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영상 하나를 추천한다. 어려운 필라테스 동작을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해내는 영상을 따라 어설플지만 동작 하나를 해본다. 은근히 몸이 데워지는 것이 기분이 좋아서 끝까지 따라 해보기로 한다. 운동 코치를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완수해야 하는 동작 개수를 채우지 못하고 꾀를 내보지만 어느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홈트족 대열에 합류했다.

TV, CD, 책자로 정보가 공유되던 홈 트레이닝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유행의 급물살을 탔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되고 댓글 소통을 바탕으로 팬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한 축에는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최적화된 홈 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마켓 형태로 하나의 앱에 수많은 트레이너가 운동 영상을 올려 스포츠 집단지성 플랫폼을 만들었다. 전문성이 보장된 트레이너들이 무한대로 생성하는 양질의 운동 콘텐츠는 운동, 식단, 멘탈 관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입고 스마트해지는 모습이다. 이용자는 영상 속 트레이너와 운동 중인 내 모습을 비교하고 인공지능 코치는 이용자 동작의 정확도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피드백한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운동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반길 트레이닝 게임도 등장했다. 내가 원할 때 나만의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한다는 홈 트레이닝의 취지도 살리면서 매력적인 보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중독성까지 강화했다. 온 가족이 함께 게임하듯 운동하면서 화합을 다질 뿐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채워야 하는 극한의 운동량 때문에 운동 효과도 만족할 수 있다.

### 꾸준함을 복돋는 나만의 운동 코치는?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라면 인기 홈트 채널 ‘땅끄부부’, ‘스미홈트’, ‘무나홈트’, ‘Fitness Blender’같이 맨손 운동을 업로드하는 채널을 눈여겨볼 것. 근력·유산소 운동부터 복부와 코어의 힘을 키우는 부위별 운동까지 10~30분 분량으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영상으로 나만의 홈트 루틴을 만들어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는 댓글도 눈에 띠고, 동작에 대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편이다.

22만 명가량의 구독자를 이끄는 ‘요가소년’을 비롯해 ‘서리요가’, ‘요가테라스’, ‘듀잇’ 등의 채널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손쉽게 집에서 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이들은 요가원에 가지 않아도 스트레칭부터 마무리 운동까지 1시간 프로그램을 한 영상에 담아내 만족도가 높다. 단, 요가나 필라테스의 완벽한 자세를 따라 하려는 욕심은 금물. 홈 트레이닝은 자세 교정을 받을 수 없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댄스와 접목해 더 신나고 즐겁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채널도 있다. ‘빼앗스핏’, ‘Sunny Funny Fitness’ 등은 음악과 접목해 누구나 재미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돋는다. ‘홈 트로박’이나 다이어트 댄스, 줌바 댄스까지 화려한 구성과 힘 넘치는 추임새로 혼자 하는 운동을 에너지 넘치게 소화하도록 이끌어 찾는 이가 많다.

홈 트레이닝의 인기로 많은 채널이 등장하고 있다. 수준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부터 해나간다면, 영상 속 코치처럼 내 몸도 보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만 하지 말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기구



트레이닝 매트

매트는 층간 소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해 부상을 막는다. 땀이 나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두꺼우면서도 너무 푹신하지 않은 것이 동작을 하기에 좋다.



탄성 저항 밴드

고무 또는 라텍스 재질로 만들어 휴대가 용이하므로 덤벨 대신 많이 사용한다. 근력 운동 효과를 높여 매끈한 어깨 라인과 단단한 허벅지를 만드는 운동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폼 롤러와 마사지 볼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도구로 몸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등이나 허벅지, 종아리 등 손으로 마사지하기 어려운 곳까지 시원하게 풀어준다.



스팟 머신

스팟은 정확한 자세를 취하기 쉽지 않은데, 스팟 머신은 고정 틀이 발목을 지지하고 앉을 때 엉덩이 위치를 잡아줘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돋는다.



밸런스 보드

보드 위에서 서핑하듯 몸의 균형을 잡는 운동은 코어 균육 강화에 효과적이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해 신체 대사량이 높아지고, 체형 교정에도 좋다.



## 스마트한 홈 트레이닝을 위한 추천 애플리케이션



### Like Fit

AI 홈 트레이닝으로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카메라로 인식해 가이드해준다. 잘못된 자세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어 자세 교정에 효과적이다. 내가 원하는 운동 개수와 세트, 속도도 설정할 수 있다. 30일 챌린지 운동에 적합한 앱이다.



### TABATA

타바타 운동은 20초 운동 동작, 10초 휴식을 8회 반복해 4분간 최대 강도로 몸을 움직이는 체력 증강 운동법이다. 이 순환 운동을 도와주는 앱으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150가지가 넘는 부위별, 목 적별 동작을 다채롭게 소개해 유용하다.



### Nike Training Club

나이키에서 제공하는 운동 앱이다. 나이키의 마스터 트레이너와 선수들이 설계한 100가지 이상의 운동법을 제공한다. 마이클 B. 조던이나 아이제이 토머스 등 좋아하는 선수와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이 있다.



### FitDay

애니메이션으로 운동 동작을 자세히 알려주고, 성우가 응원과 함께 동작별 운동 효과까지 알려줘 유익하다. 저질 체력 탈출하기, 매일하는 7분 운동, 뱃살 제거 다이어트 등 다양한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 모두의 트레이닝

1:1 전담 코치의 일자리를 받는 유료 서비스다. 식단 관리는 물론 라이프 코칭, 멘탈 관리까지 진행한다. 실제 경력을 인정받은 전담 코치진이 관리해주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체중 감량, 몸매 관리 효과를 원한다면 추천한다.



### 다이어트신

운동과 식단을 관리하는 다이어리, 칼로리 사전, 만보계, 물 알림 등 다이어트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들어 있다. 또한 목표 감량 체중과 기간만 입력하면 하루 필요한 음식과 칼로리를 처방해줘 전문가 도움 없이 운동 스케줄을 짤 수 있다.



### 7분의 기적

12가지 핵심적인 운동을 7분 만에 마치도록 설계한 홈 트레이닝 앱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크로스핏,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동법을 소개한다. 음성 지원이 되고 운동 시간을 알려주는 등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장점이다.



### 다노

28일을 주기로 도전할 챌린지 미션, 근육 운동, 자세 교정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특히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현금처럼 해당 습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 홈 트레이닝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쉬운 유산소 운동 자세

### 1 스콰트 & 트위스트

어깨너비보다 넓게 발을 벌리고, 스콰트 자세로 내려갔다가 팔꿈치와 무릎을 교차해 맞닿게 한다. 내려갈 때는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정확하게 앓고, 허리는 자연스러운 아치형이 되도록 한다. 뱃살과 다릿살 공략에 좋은 동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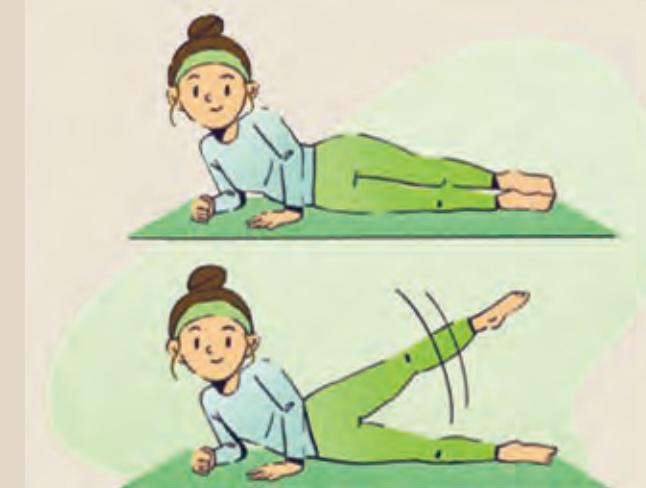
### 2 텁스텝 & 암레이즈

가볍게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좌우로 뻗는다. 30초 동안 가볍게 움직이되 천천히 반복한 다음 발가락으로 지면을 옆으로 찍어준다. 팔뚝살과 다리살 공략에 좋은 동작이다.



### 3 플리에 & 핸드클랩

발을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린 후 팔을 양 옆으로 나란히 뻗는다. 스콰트 자세로 내려갈 때마다 박수를 친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박수는 위로 10번, 아래로 10번 친다.



### 4 사이드 레그레이즈 & 펄스

옆으로 누워 상체를 일으킨 후 45도로 한쪽 다리를 올린다. 올린 다리를 승마살로 버티며 내리고 올리기를 30초 동안 반복한 뒤 반대로 다시 한 번 한다. 이때 다리를 20cm 정도만 내리고 버티는 펄스 동작까지 진행해 강도를 높인다.

# 한 달에 한 도시, 여행이 일상이 되다,

김은덕 &  
백종민 작가

NOW & MOMENT



여행하며 사는 삶을 한 번쯤 상상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2019년 직장인의 여행 트렌드는 연차휴가를 짧게 여러 번 써서 연간 두 번 정도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보통의 직장인이었던 김은덕, 백종민 작가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다 한 도시에 한 달간 머무는, 이른바 '한 달 살기' 여행을 다녀온 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2년 동안 24번의 한 달 살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대신 여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글 | 소호령 사진 | 김민정



**결혼 전에는 두 분 모두 직장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한 달 살기를 시작하기 전 삶은 어땠나요?**

김은덕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종견기업 흥보팀에서 3년 정도 일했어요. 그때도 막연히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행책을 끼고 살긴 했어요. 그러나 종민 씨라는 좋은 여행 파트너를 만나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백종민 은덕 씨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저 또한 번역 회사에서 일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막연한 생각이라고 했지만, 그때도 은덕 씨는 세계 여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희는 여성영화제 스태프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2013년부터 한 달 살기를 시작하셨더군요. 지금은 익숙한 여행 방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 살기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김은덕 2012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어요. 보통 신혼여행은 몰디브 같은 휴양지나 리조트, 호텔 등으로 가잖아요. 살면서 가장 큰돈을 들어 여행을 가는 때죠. 그런데 그때 종민 씨가 플랫폼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에어비

앤비였어요. 당시에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론칭하기도 전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플랫폼을 꼭 써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동안 남의 집 방 한 칸에서 지내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궁금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에 가서 처음으로 호스트가 있는 집에서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 달 살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때부터 이어졌네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게 된 건가요?**

백종민 신혼여행을 하면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게 된 건 예산 때문이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 데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계에 따르면 저희는 두 명이니 일 년에 6,000만 원, 2년간 다녀올 계획이었으니 총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였죠. 그런데 당시에 저희 수중에는 딱 그 절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박비를 최대한 낮추고, 항공권 같은 큰 예산이 드는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을 찾게 된 거예요. 한 여행지에서 한 달

66

한 달 정기권을 들고  
트램에 올라탄다.  
출근 시간 사람들 틈에  
끼어도 보고,  
한가로이 종점까지  
작은 여행도 떠나본다.

만원버스라는  
일상의 풍경도  
여행 중이라면  
달리 보이니까.

99

정도 머무르면 저희가 가진 돈으로 2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김은덕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둘의 여행하는 스타일 때문이기도 했어요. 같이 다니기 전에 찍은 여행 사진을 봐도 저희 둘 다 관광지에서 '브이'하고 찍은 게 없어요. 얘기해보면 종민 씨는 여행지에서 시장에 들러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저도 관광지 같은 곳에 가는 것보다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는 여행을 좋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르는 여행객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책에 나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시민의식이 생겼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신 건가요?

백종민 아무리 여행이지만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면 제법 두터워진 인간관계가 생겨요. 그곳에 친구들을 두고 오게 되는 거죠. 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면 지나가는 기사 정도로 듣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게 되지요. 친구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친구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게 되어요. 일기 예보를 볼 때도 서울의 날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친구들이 있는 곳 모두를 신경 쓰게 되지요. 어느 지역에 태풍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그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시민으로 사는 세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은덕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한

달을 살다 보면 작게는 각 나라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차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생활 속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글로벌 이슈로 생각하게 되어요.

지금까지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얻은 좋은 점 중 가장 큰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김은덕 이제는 어떤 문화를 만나도 편안하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 외국인이 있어도, 그 사람이 무슬림이라 오후 기도를 한다 해도 당황하지 않겠죠.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관해 생각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백종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법을 배웠어요. 며칠 전에 한 달 살기를 마치고 돌아와 한국에서 첫끼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돈을 여기서 지불해야 하는지, 저기 가서 해야 하는지 헛갈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계속 마주하게 되네요. 익숙했던 것들인데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한 경험이 제 의식을 계속 깨워주는 것 같아요.





### 친구들을 대접하는 만찬의 음식

루이자 메이 올컷의『작은 아씨들』은 1863년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소설이다. 한 집안의 네 자매가 소녀에서 숙녀로 자라기까지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 진솔하고 따뜻한 우애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 이 사랑스러운 '아씨들'을 지켜보노라면 우리도 그들의 자매가 된 듯 애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보다.

하지만 그중에서 유독 에이미는 예외인 것 같다. 에이미를 향한 독자들의 미움과 비난은『작은 아씨들』을 향한 찬사만큼이나 열렬하고도 역사가 깊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조와 에이미가 앙숙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리광쟁이 막내 에이미는 언니인 조를 자꾸 놀리고 귀찮게 하는 데다 작가 지망생 조가 공동으로 쓴 소설 원고를 불태워 없애는 끔찍한 사고를 치는가 하면 조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 이상 연인 미만'으로 지내왔던 잘생긴 이웃집 청년 로리의 사랑을 독차지해 결혼까지 한다. 조에게 감정 이입을 하는 수많은 여성 독자의 공분을 사는 것도 당연하다. 게다가 허영심 많고 잘난 척 심한 성격도 에이미가 미움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어렸을 때 내가『작은 아씨들』을 읽으면서 에이미의 허영심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부분은 열다섯 살이 된 에이미가 여름 방학을 맞아 파티를 여는 장면이었다. 미술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풍성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근처 강가에서 배놀이도 하고 스케치도 하면서 노는 파티. 계획 자체는 그럴싸했다. 하지만 메뉴 선정이 문제였다. 가난한 교회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매들이 다 같이 생계 전선이나 가사에 뛰어들어야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부자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번듯한 음식을 차려내겠다는 에이미의 계획은 과한 욕심으로 보였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케이크, 샌드위치, 과일, 커피만으로 간소하게 식탁을 차려도 충분할 거라고 조언하지만, 에이미는 '우아하고 에티켓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지 못할 거라면 파티를 취소하는 게 낫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에이미가 결정한 메뉴는 소 허 냉채, 바닷가재 샐러드, 닭 요리, 프랑스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였다.

나는 그 모든 게 대단히 화려한 메뉴로 느껴졌다. 소 허 냉채라니. 소 허 같은 부위는 먹어본 적이 없거니와 그걸로 '냉채'를 만들면 무슨 맛이 날지 상상도 되지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고급 프랑스 요리가 아닐까 싶었다. 초콜릿도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프랑스 초콜릿이라 하고,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구해 먹은 건지. 바닷가재, 즉 랍스터는 지금도 값비싼 식재료에 속하는데 그때는 오죽했을까 싶었다. 에이미가 용돈을 모아 그런 무리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을 보며 어린 시절 내가 느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지금도 기억난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려는 에이미가 보기 좋게 실패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에이미가 결국 성공해 반짝거리는 화려한 식탁을 차려내기를, 그래서 1990년대 한국땅에서 자라는 소녀인 나는 구경할 수도 없는 이국의 사치를 대리 체험 하게 해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에이미에게 이러한 양가감정을 느낀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에이미를 미워하는 독자들의 마음은 사실 애증에 가깝지 않을까. 에이미가 등장하는 유명한 '라임 절임'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에이미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간식인 라임 절임을 학교에 잔뜩 가져가 자랑하다가 선생님에게 들켜 전부 압수당하고 체벌까지 받을 때, 그 교실 안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소녀들은 하나같이 선생님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고 에이미를 안타까워했다.

#### \* 바닷가재 샐러드

바닷가재는 꽃처럼 달달하고 새우보다 탱글탱글한 식감의 해산물이다. 전통적인 미국 북부식 바닷가재 샐러드는 기본적으로 잘게 썰거나 다진 바닷가재 살에 마요네즈를 버무리고 소금과 후추로 밀간한 것이다. 여기에 취향에 따라 레몬즙, 셀러리, 양파, 오이 등을 추가한다. 이렇게 만든 샐러드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로도 즐겨 먹는다.

-『생강빵과 진저브레드』중에서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김지현 저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는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을  
탐험하는 '번역'의 활동함과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산문집이다. 문학 속에만  
존재하는 문학적 음식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한국어로 옮겨져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의 '맛'에  
대해 이야기한다.





#### 에이미와 바닷가재를 위한 번호

에이미를 위해 여기서 오해를 풀자면, 에이미가 미술반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 식사는 사실 그다지 사치스러운 메뉴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소의 안심이나 등심 같은 질 좋고 말끔한 부위에 비해 소 허는 저렴한 잡육에 불과했다. 바닷가재도 마찬가지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바닷가재는 고급 식재료는커녕 '불결과 빙곤의 음식'으로 통했다. 바닷가에 떠밀려와 쌓일 정도로 흔한 데다 징그럽게 생겼다는 인식 때문에 거름이나 낚싯밥 정도로 써야 알맞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다 미국 곳곳에 철도가 놓이면서 동부 지역의 해산물이 내륙 지방에 퍼지고 바닷가재를 보기 좋고 맛있게 요리하는 법이 개발되면서 이 저렴하고도 매력적인 식재료가 요식업계의 각광을 받게 되었다.『작은 아씨들』의 배경인 1860년대에 이르러 바닷가재는 레스토랑 샐러드 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먹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신분 상승을 거쳐 고급 해산물의 제왕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로부터 100여 년이 더 지난 뒤의 일이다. 에이미가 식탁에 올리려 했던 바닷가재는 호화 음식이라기보다는, 오늘날 한국으로 치자면 냉동 새우쯤 되는 식재료였다.

요컨대 에이미는 큰 허영을 부린 것이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무난하고 모양이 빠지지 않는 메뉴 선정을 했을 뿐이다. 만약 『작은 아씨들』 배경이 2019년 서울이었다면 에이미의 점심 메뉴는 불고기 김밥, 칵테일 새우로 만든 김바스 알 아히요, 연어 통조림을 넣은 양상추 샐러드, 홍대 앞 유명 베이커리의 식사 빵과 저렴한 구운 과자 몇 가지인 식이었을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구색을 갖춘 식탁. 에이미는 이만큼 융통성 있고 요령 좋은 사람이었다.

에이미가 꾸렸던 상차림의 실체를 알고 에이미에게 새삼 미안해졌다.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노력을 비웃을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물론 무리해 비싼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손님에 대한 진심만 있다면 충분히 훈훈한 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겨우 열다섯 살에 그런 이치를 터득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마음보다는 돈 씀씀이를 보고 평가하고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어른들도 너무나 많은 세상 아닌가.

『작은 아씨들』의 결말에서 에이미는 결국 훌륭한 신사와 결혼해 귀부인이 되어서는 젊은 예술가 지망 여성들을 후원한다. 에이미는 라임 절임을 교실 밖으로 내버렸던 선생님처럼 욕심을 잔인하게 짓밟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소녀들에게 샐러드는 무색할 만큼 성대한 만찬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꿈꿀 수 없었던,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읽는 우리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만찬 말이다.



영화 『작은 아씨들』, 2019  
소설『작은 아씨들』을 원작으로 한 그레타 거wig 감독의 2019년 영화. 이 소설은 19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번 영화로 제작되었다. 2019년 『작은 아씨들』은 고전을 재해석해 시끌벅적한 유년 시절 자매들을 유쾌하고 모던하게 그린다.



## 에이미의 손님 초대 요리

에이미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그다지 사치스러운 메뉴가 아니었다. 소 허라고 하면 생소하고 이국적인 식재료로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등심이나 안심 같은 고급 부위에 비해 값싼 식재료였다. 바닷가재는 지나치게 흔해 낚싯밥으로 쓸 정도였다. 하지만 에이미는 저렴한 식재료로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대접하려고 했다. 소박하지만 마음만은 호화스러웠던 에이미의 만찬을 알아보자.



# 불확실한 미래, 〈컨테이전〉과 코로나바이러스

거리를 둘러보면 모두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다.  
뉴스는 온통 바이러스 얘기로 가득하고, 치료제를 구하기 위한 줄이 끝없이 이어진다. 현실이 아니라 스크린 속 이야기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변해가는 세계를 이미 10여 년 전에 정확히 보여준 영화가 있다.

글 | 정재광 자유기고가



## CONTAGION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

### 주요 증상

발열 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 예방 수칙

비누를 이용해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의료 기관 방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재채기할 때에는 반드시 웃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상 증상 발견 시 보건소,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1339로 문의

nothing spreads like fear

### 장면마다 활기되는 서늘한 대자ぶり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반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질병관리센터의 미어스 박사 케이트 윈즐릿과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반스의 기침 소리를 듣고는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한다. 강력한 바이러스 MEV-1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이 높으니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반스는 자신과 접촉했던 자녀들의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버스의 기둥과 손잡이를 거듭 만져가며 몸을 가꿀 수 밖에 없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미어스 박사는 의식을 잃어가는 반스를 향해 마스크를 씌우려 다급히 달려온다.

2011년 개봉한 〈컨테이전〉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으로 가득하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전문가들에게 철저한 검증을 받아 완성한 이 영화는 마치 지금의 상황을 보고 만든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의 패닉 상황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첫 사망자 역할의 귀네스 펠트로를 비롯해 맷 데이먼, 로런스 피시번, 마리옹 코티야르 등의 배우가 앙상블 캐스트 형식으로 출연하는데, 이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서로 인연이 없지만 전염병을 고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하이퍼링크 시네마' 방식은 〈오션스〉 시리즈를 만들어온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특징이다. 흩어져 있으면서도 바이러스로 인해 그 연결성이 다시금 확인되는 현대 글로벌 사회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 바이러스를 넘어선 우리의 미래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를 훔쓸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모양이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크라운을 뜻하는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의학계에서 바이러스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라고 표현한다. 스스로 재생산을 못 하고 다른 생물체에 들어가 세포 확장을 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좀비처럼 삶과 죽음을 오가는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영화와 현실이 닮은 것은 비극적인 전염병 피해만이 아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과학자와 의료 빈곤 지역으로 기꺼이 달려가는 의료진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미 우리의 몸 안팎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인간 역시 살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전염병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번지는 것도 인간이 빌달시킨 교통수단을 통해 바이러스가 활발히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우리는 이것들과 공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화관에서, 식당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위생을 지키는 새로운 태도와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는 일이 상식이 되고 있다.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바이러스를 넘어 안전한 미래를 앞당기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다.



느장 대응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보단 과잉 대응으로 비난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컨테이전〉 중 엘리스 치버 박사의 대사





# 2020

**포기하지 않는  
인류의 미래,**

##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 Perseverance

2020년 여름에 인류 역사상 다섯 번째로 쏘아 올려질 화성 탐사선의 이름은 ‘인내’, ‘불굴의 의지’를 뜻하는 ‘퍼서비어런스 Perseverance’다. 미 항공우주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로버 이름 짓기 에세이 공모전에서 레이크 브래더 중학교 학생 알렉스 매더가 응모한 이름이 선정된 것이다. 매더는 에세이에서 “우리는 ‘도험하는 종’이고, 화성으로 향하며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지만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썼다. 그의 말처럼 인류는 1997년 최초의 화성 탐사 로버인 ‘소저너’를 시작으로 2004년 스피릿 앤 오퍼튜니티, 2012년 큐리오시티를 보내 끊임없이 탐사했다. 퍼서비어런스 또한 지금도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와 함께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인류가 직접 화성에 발을 딛게 될 때까지….

60<sup>th</sup>

## N O W

변화와 혁신의 DNA를 품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구성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와 신념을 되새기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이 60년의 세월 앞에 한결같이

지켜온 아주인의 자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글로벌 리더의 비전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꿈꿉니다.



# & STYLE

청춘이란 마을의 젊음이다.  
기애 넘치 메일을 새롭게 활동하는 한  
청춘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다.  
시무얼 풀면

는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0주년을 맞아 아주는 창업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지속되  
변화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  
능 분야의 개척자가 되겠다  
도의 도전 정신에 새로운 활  
기를 근간 삼아 새롭고 활기  
주년의 봄을 맞이한 아주인



© NASA

20<sup>th</sup>

1980년대 아주는 도약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발 앞서 걸음을 내딛는  
개척자의 자세야말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건자재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그렸습니다.

T h e n



2020년 여름에 인류 역사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는 ‘도험하는 종’이고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큐리오시티를 보내 끊임없  
직접 화성에 발을 딛게 될

# AJU & STYLE

AJU 60th ANNIVERSARY

청춘이란 마을의 젊음이다.  
신념과 희망, 용기에 넘쳐 매일을 새롭게 활동하는 한  
청춘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다.  
세계角落

젊음은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아주는 창업  
주가 최초로 품었던 꿈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지속되  
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변화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  
상을 이롭게 만드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척자가 되겠다  
는 젊은 계열사의 꿈은 아주의 도전 정신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지요. 밝은 지혜를 근간 삼아 새롭고 활기  
차게 그려는 미래. 창립 60주년의 봄을 맞이한 아주인  
의 이야기입니다.

## 밝은 지혜, 다가올 미래를 밝히다

신입사원 김아주와 문태식 명예회장의 가상 대화

1년 전 아주 가족이 된 신입사원 김아주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낯선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되는 나날을 보내던 중, 반복되는 업무 실수까지 겹쳐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선배들은 물론 팀장까지 나서서 처음엔 다 그럴 수 있는 거라며 위로했지만 의기소침해진 김아주의 마음에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아주는 사내 메신저에서 '문태식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의 접속자를 발견하게 된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간의 고민을 진솔하게 담아 문태식 명예회장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

글 | 유재원 일러스트 | 민지홍



문태식 명예회장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저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 김아주입니다. 몇 년 전 참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건자재 사업을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60년 역사에 감명을 받아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명예회장께서 아주 창업 당시 "전신주의 소재를 콘크리트로 바꾸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비싼 외화를 주고 몇 달, 몇 년씩 걸려 나무 전신주를 수입해 사용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던지고, 나무 전신주를 콘크리트 전신주로 교체해 농어촌 전기 보급에 기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 저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입사 후 매일매일 청남빌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명예회장님, 요즘 저는 주어진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기분이 듭니다. 간단한 일인데도 실수가 잦은 제가 개척자 정신을 실천하는 진정한 아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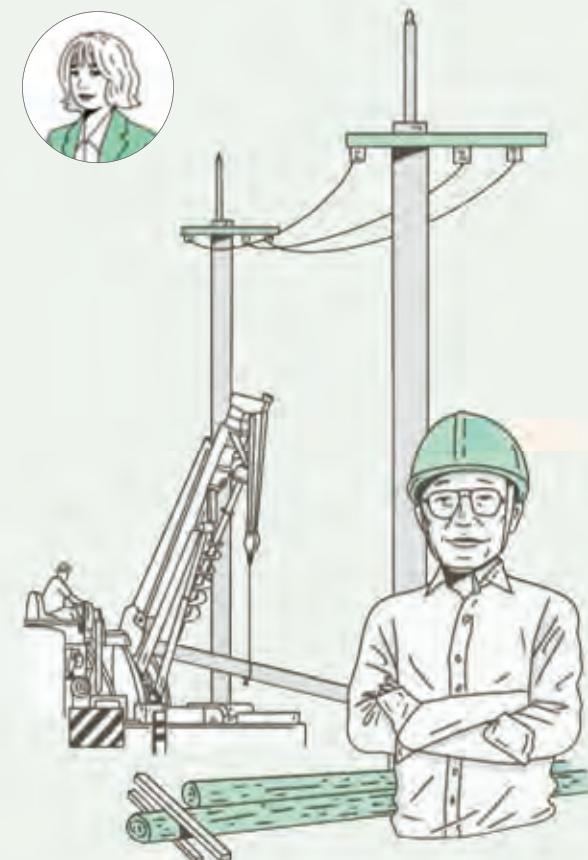
### 문태식 명예회장



김아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사내 메신저라는 것을 쓴다고 해서 접속해보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웃음) 개척자 정신에 가슴 뛰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다니! 아주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아주 개척자 정신의 역사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은 모두가 열심히 달려온 덕분입니다.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근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생각을 지켜가는 용기 그리고 뚝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누구든 처음부터 개척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아주 매니저님처럼 개척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나아가 그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매니저님, 개척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언제나 실수를 통해서지요. 제가 태어난 1928년 2월 우리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하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이 부흥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의 김아주 매니저님처럼 당장 그를 실행할 역량이 부족했지요.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사업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사업보국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60년 나무 전신주를 콘크리트 전신주로 교체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저 또한 무수한 실수를 반복했지만 절대로 당황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다시 불들고, 잘못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끈질긴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 김아주 매니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예회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어요. 듣고 보니 제가 개척자 정신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개척자 정신의 근간은 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지금보다 한 뼘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가슴에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명예회장님, 그렇다면 혹시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신가요?

김아주 매니저



## 문태식 명예회장



요즘은 인터넷이 많은 것을 알려주어 지식을 구하기 쉬워졌지만, 지혜를 구하기엔 어려워진 시대라지요? 너무 자신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말과 태도에 깃든 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青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인생 가는 곳마다 푸른 희망이 있다는 뜻을 품은 문장입니다. 앞서 짧깐 이야기했듯, 저의 인생에도 늘 위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1959년 일본에서 시멘트를 수입해 판매하던 당시 태풍을 만나 시멘트가 모두 젖어 납품이 어려워진 적도 있었고, 콘크리트 전신주 사업을 시작할 당시 갑자기 등장한 무수한 후발 주자들로 인해 생산 단가가 폭락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태풍 피해 지역의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시멘트를 납품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전신주에서 영역을 확장해 레미콘, 아스콘과 같은 건자재를 본격적으로 취급하는 아주산업으로 더 빨리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 문태식 명예회장



저 또한 현재 아주의 행보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를 직급 대신 매니저라는 호칭으로 부르더군요. 수평적 소통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한 노력이 엿보이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계열사가 직무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자유롭게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기업 문화의 수평적 변화와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움직임이 아주를 더 좋은 기업으로 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주만의 경영 방식인 ANT AJU New Thinking에 담겨 있는 주도적 성장, 집단지성에 대한 열정에도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혁신 에너지가 오늘날의 아주를 만든 원동력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생각해보면 선배들도 저에게 일을 알려주실 때, 한번에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것이라면 관점을 달리해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긍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명예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짧은 저의 회사 생활에서도 가슴 뛰는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학 시절 여행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저는 세계의 다양한 숙소에서 투숙해본 경험이 있지요. 회의 자리에서 숙소 예약을 잘못해 부랴부랴 묵었던 외국 호텔 이야기를 우연히 하게 되었고, 그 경험담이 시즌 이벤트 기획에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구성원 모두가 경험해 좋은 기회으로 발전시키는 아주의 사내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가 지향하는 변화, 혁신의 에너지는 경영과 협력의 방식으로 새로움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아주 매니저



지금 저희의 행보를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다니,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현재 저희 아주인들은 기존 국내 사업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는 한편 동남아, 미국 등 세계 무대로 진출하며 해외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 이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연대를 토대로 상생과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빠르게 읽고, 글로벌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는 아주의 행보 속에서 저 또한 해외 사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저는 훌륭한 선배, 동료들과 함께 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뿐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사업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아주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아주 매니저



## 문태식 명예회장



기업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직원, 사회 구성원,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어 세계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꿈을 때로는 개개인의 지혜로, 때로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실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아주의 개척자 여러분, 성실하게 일구어낸 60주년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인공지능 없는 혁신도 없다,

### 주식회사 엠티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아주의 젊은 계열사 엠티콤은 아직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최신 기술들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도입하는 꿈을 키운다.

2020년 인공지능 분야의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엠티콤과 아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과 기술이 더불어 열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보자.

글 | 유재원 사진 | 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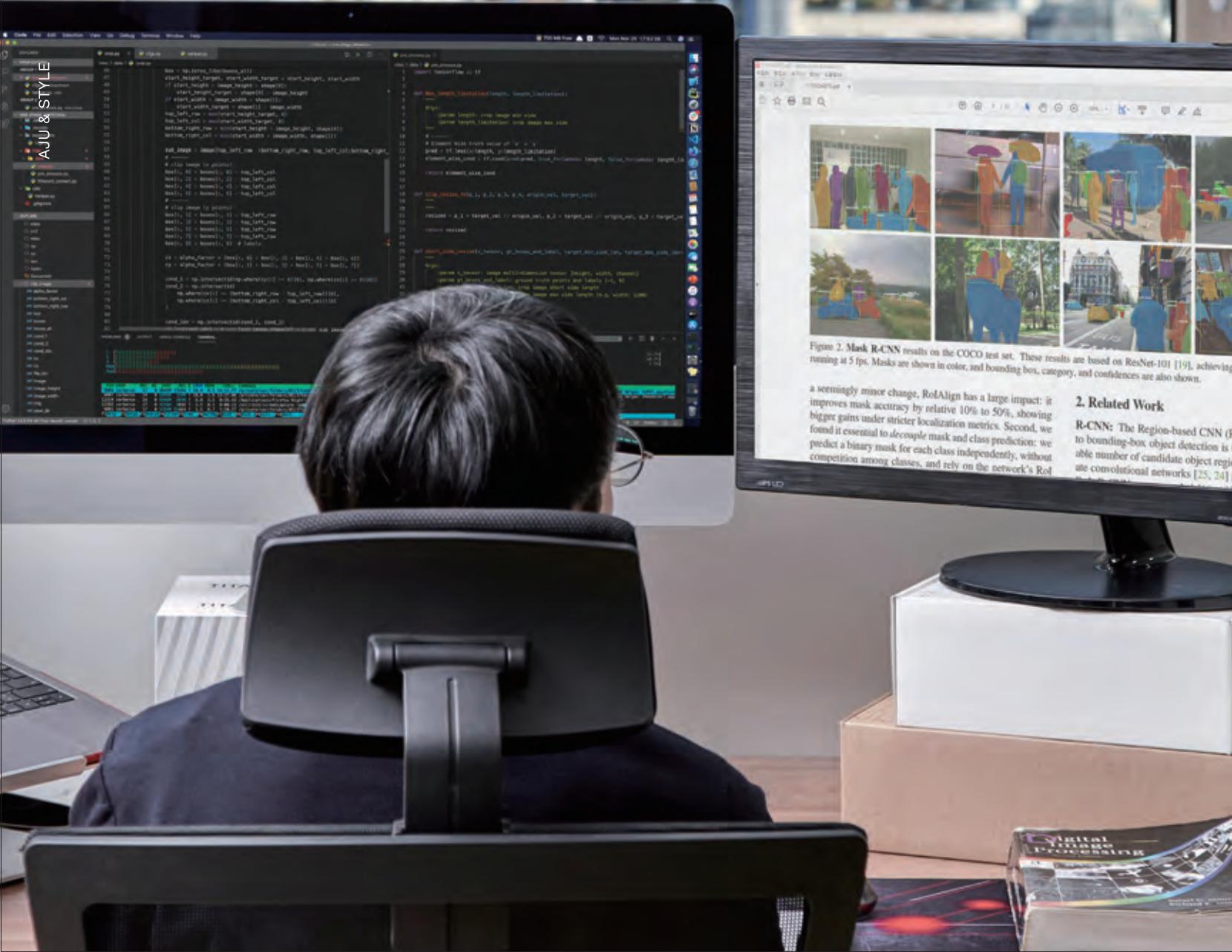


Figure 2. Mask R-CNN results on the COCO test set. These results are based on ResNet-101 [19], achieving a mIoU of 39.1%. Masks are shown in color, and bounding box, category, and confidences are also shown.

a seemingly minor change, RoIAlign has a large impact: it improves mask accuracy by relative 10% to 50%, showing bigger gains under stricter localization metrics. Second, we found it essential to decouple mask and class prediction: we predict a binary mask for each class independently, without competition among classes, and rely on the network's RoI

#### 2. Related Work

R-CNN: The Region-based CNN (R-CNN) to bounding-box object detection is to alterable number of candidate object regions [42] are convolutional networks [25, 24] indepen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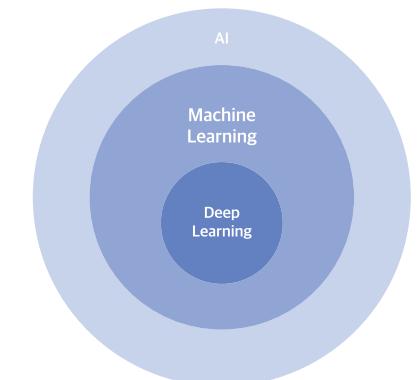
### 우리 삶의 친근한 조력자, 인공지능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의 발발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우리 삶의 토대가 예상보다 더 빨리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서울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 음성 인식을 활용한 ARS 서비스의 필요성을, 재택근무의 경험을 통해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화상 회의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음성 인식 솔루션, 얼굴 인식 기술 등은 모두 인공지능 중에서도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한다. 머신러닝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를 활용해 실현하는 기술이며,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도 최신 지견知見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지식 기반 머신러닝 시대에는 사람이 컴퓨터에 인간의 지식 체계를 있는 그대로 입력하고 트레이닝시킨 대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딥러닝 단계로 넘어가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알아보는 지식 체계를 입력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할 데이터 자체를 방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데이터 심층에 들어 있는 표상 Representation을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음의 행동, 결과물을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대상의 이미지적 특성, 음성, 문자 등 기호적 특성, 게임의 룰과 같은 표상을 스스로 포착하고 데이터화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 기술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 분류 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발견해냄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지요. 또한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기던 문화, 예술, 감성적 분야까지도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바흐 풍의 멜로디 흐름, 반 고흐의 그림 스타일까지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게 되었죠. 2016년 알파고를 떠올려보세요. 알파고가 스스로 바둑 대국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음 수를 예측해내놓을 수 있었던 비법도 바로 이 딥러닝 강화 학습에 있습니다.” ————— 엠티콤 이수화 전문위원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우리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조력자이며,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간단하게는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알맞은 광고를 추천하는 검색 엔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일은 스스로 스팸으로 분류해내는 이메일 시스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나아가 딥러닝은 앞서 언급한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기능을 토대로 자율주행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 교통 기술의 토대를 구축해낼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 정복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신약 개발 기법 또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신진대사나 생리 조건에 걸맞은 맞춤식 신약 조합의 시대가 곧 펼쳐질 것이다.



###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 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 사람이 학습하는 방식과 체계에 따라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분야

### Deep Learning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기계 학습의 방법. 수많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입력해 인공지능 스스로 데이터 심층의 표상을 인지-학습-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

## 인공지능 토클 솔루션, 고객 삶을 즐겁고 편리하게

2009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엠티콤은 인공지능이 각광받기 이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 역량을 쌓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준비된 전문가 그룹이다. 미래의 기업 환경에 인공지능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사내에 자체 인공지능 연구소를 마련하고,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기술 개발에 전념해왔다. 그 결과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 인식 기술을 보유하게 된 엠티콤은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한 '보이스페이퍼 VOICEPAPER'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각종 보험, 금융, 홈쇼핑 콜센터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보이스페이퍼 VOICEPAPER는 고객과의 음성 상담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고객 상담 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각종 분석 솔루션을 더해 고객 데이터를 확보, 고객사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요. 기업은 이를 통해 콜센터에서 발생 가능한 많은 문제를 미리 캐치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규 사업 구상을 위한 데이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요." ————— 엠티콤 황효찬 매니저

엠티콤의 진정한 강점은 오랜 서비스 개발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최고의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아무리 우수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2020년 엠티콤이 출시한 '데이터 고블린 Datagoblins'은 고도화된 데이터 '수집-분류-가공-검수-학습' 서비스다. 엠티콤은 데이터 고블린 Datagoblins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니즈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풍부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역량을 발휘해 고객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컨설팅한다. 나아가 맞춤 개발 및 납품까지 거둔 책임지며 인공지능 토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엠티콤은 인공지능 기술을 고객 상황에 알맞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고블린 Datagoblins의 경우, 각 현업에 최적화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요. 그리고 저희 엠티콤은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기업입니다. 아직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의 인공지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장 쉬운 접근법인 챗봇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해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가까운 우리의 일상이나 일반 고객과의 접점이요? 사진과 음성 녹음에 자동으로 태그를 달아주는 아이클립 I-Clip 서비스와 같이 친근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반 삼아 앞으로도 꾸준히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고 싶습니다." ————— 엠티콤 허훈 대표



## 행복한 미래를 향한 개척자의 꿈

한국은 훌륭한 정보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아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업 초기 엠티콤 역시 보유 기술력은 높이 인정받았으나, 인공지능이 상용화되지 않은 탓에 매출로의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엠티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본 아주가 투자를 제안했다. 2017년 아주와 엠티콤은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하며 한 가족이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인공지능의 영역이 점차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의 개척자 정신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엠티콤은 아주 내 수많은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주의 여러 계열사와 함께 엠티콤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개척자가 되고자 합니다." ————— 엠티콤 허훈 대표

아주의 젊은 피답게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엠티콤. 우수한 서비스 모델, 뛰어난 인공지능 알고리즘 엔진,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 빅데이터를 축으로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끌어올림은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 분야 후발 주자들의 귀감도 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음성 인식 스피커에 한정된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용화해 일반 고객들의 삶에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과거 기술과 부는 인간을 소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토대로 마련할 새로운 서비스는 감성적으로도 풍부하고 즐거우며 편안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인간의 삶을 데이터로 분석해 접근한다면,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는 살아 있는 가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판례,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는 기술적 측면의 편의함은 물론 공공 정서까지 고려한 자율 운전 및 도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지요. 인간이 제도를 만들어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 시스템화한다면, 기술적, 윤리적, 정서적으로 질서가 잘 잡힌 행복한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엠티콤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 엠티콤 이수화 전문위원

울더스 헉슬리는 1932년『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통해 20세기 기계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진보가 전제주의 사상과 밀착되어 인간성이 파괴되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했다. 그러나 2020년 아주와 한 가족이 된 지 3년 차를 맞이하는 엠티콤이 그려가는 미래는 기계, 시스템에도 따뜻한 인간성을 부여해 관심, 격려, 애정, 인정과 같은 감성의 교류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유토피아에 더 가깝다. 인공지능이 만능이라는 생각이 아닌, 사회의 결핍을 기술로 채운다는 겸손한 생각으로 자신만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엠티콤. 이들의 건강한 행보가 우리 삶의 풍경을 바꾼다.



머신러닝이 신기술이어서  
채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채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페드로 도밍고스, 워싱턴대 교수

### 데이터 바우처 사업 소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업 환경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700만 원까지 데이터 가공 플랫폼 '데이터 고블린Datagoblins' 또한 혜택과 함께 체험이 가능하니, 필요한 기업은 문의해볼 것.  
[https://www.kdata.or.kr/busi/busi\\_01\\_03.html](https://www.kdata.or.kr/busi/busi_01_03.html)  
<https://datagoblins.com/>





## 아주의 방식으로 실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아주산업뿐 아니라 모든 아주의 계열사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힘을 모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력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주산업 광주사업소 심명한 매니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는 이때, 아주도 각 계열사의 상황에 맞추어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아주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대국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편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휴교령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유급 휴가 지원, 임산부 재택근무 등 공동 원칙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는 커다란 원칙을 함께 지켜가는 동시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며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가장 돋보이는 점은 고객 응대가 일상인 서비스 계열 아주인들의 철저한 예방 노력이다. 아주네트웍스는 고객 라운지, 시승 차량, 상담 테이블 등 고객 응대 공간을 수시로 소독해 고객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도 안심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전시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찾아가는 시승 행사'를 기획,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없도록 기지를 발휘하고 있다.

아주산업과 아주지오텍의 경우 최근 중국을 다녀온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며, 출근과 동시에 체온을 체크해 현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 납품과 영업을 위해 늘 현장을 누벼야 하는 아주산업 품질관리팀과 영업팀은 개인 차량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사업소로 복귀하기 전에도 개인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해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외의 계열사들 또한 각자의 현장에 걸맞은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아주IB투자는 재택근무, 근무 시간 단축, 외부 미팅 자체 등을 실시해 고객 및 구성원의 안전을 배려하며 아주호텔앤리조트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 채 월요일, 금요일에만 전 구성원이 출근하고 다른曜일에는 팀별로 최소 인원만 근무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아주좋은꿈터 또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휴관을 결정했다.



## We're still Twenty! 청년의 마음으로 60주년을 맞이하다

1월 2일 아주는 청남빌딩 17층 AJU 인재다움에서 시무식 자리를 가졌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의 시작, 문규영 회장과 각 사 대표 임직원 100여 명의 안색은 밝고 활기찼다. 시무식의 첫 순서는 매년 이어온 우수 인재 표창. 최우수 사업장으로는 아주산업 상암사업소, 광명사업소, 아주오토리움 일산지점이 선정되었고, 핵심가치 실천 리더로는 아주산업 상암사업소 지원팀 심형준 매니저, 광명사업소 영업팀 임현석 매니저, 아주IB투자 벤처투자부문 Solasta Ventures 윤동민 법인장이 선정되어 각 계열사 가족들과 기쁨을 나눴다. 이어서 아주 60주년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아주 비서실 이황철 실장은 아주 60주년 기념 엠블럼에 담긴 의미와 제작 과정을 소개하며, 올 한 해 다 함께 60주년의 의미를 실천해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20대의 열정을 잊지 않고 달려와준 임직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주 창립 60주년 기념 엠블럼의 의미

◎아이덴티티

숫자 60과 20을 강조하며 중의적 의미 전달 / 1960년에 창립해 60세를 맞은 아주의 '60' 2020년을 맞으며 20대 청년임을 다짐하는 아주의 '20'

◎슬로건

We're still Twenty / 2020년 여전히 20대 청년의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아주의 다짐

◎컬러

Gray: 아주의 시작이자 모태인 콘크리트와 아주의 60년 역사를 대표하는 자부심의 컬러

Blue: 가보지 않은 미래,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블루오션을 지향하는 아주의 블루 컬러

Orange: 아주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 새로운 아침을 여는 새벽을 상징하는 컬리아자

아주의 핵심가치 가운데 '창조적 혁신'을 상징하는 컬러



## 홈페이지 개편, 젊은 감성으로 소통하다

2월 20일 새 단장을 마친 아주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이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진행한 홈페이지 개편이다. 개편을 준비하며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방문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주 홈페이지의 주 방문층이 20~3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젊은 방문자들의 감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 개편을 진행했다.

첫째, 아주가 꾸준히 이어온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부각하고자 '지속가능성' 탭을 신설했다. 이는 소비 혹은 근로 생활을 단순한 경제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 기준을 고려한 것.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해당 탭 내부에 '기업 문화', '고객만족/혁신', '글로벌/지역 사회/환경'과 같은 세부 카테고리를 마련해 아주만의 수평적이면서도 유연한 기업 문화, 기술연구소로 대표되는 고객 만족을 위한 꾸준한 노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꾸준히 홍보해갈 예정이다.

둘째, 형식과 디자인적 측면에서 시원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주의 다양한 업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기존 아주 홈페이지는 각 계열사 소개 페이지의 경우, 사진 한 장에 설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아주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아주의 다양한 계열사가 하는 일을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을 선별해 수록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은 물론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 또한 아주라는 브랜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홈페이지\_ [www.aju.co.kr](http://www.aju.co.kr)



## 아주IB투자, 벤처창업진흥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1974년 국내 최초의 벤처캐피털사로 출발해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아주IB투자가 2019년 12월 10일 '2019 벤처어워드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에서 투자 활성화 분야 투자 지원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벤처기업 활성화와 지식 서비스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개인, 기업, 단체를 포상하는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창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수상에서는 특히 아주IB투자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미국 바이오 시장 진출 포트폴리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주IB투자는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감지하고 국내 벤처캐피털로서는 진출 이력이 전무했던 미국 보스턴으로 과감하게 발을 넓힐 것을 결정했다. 나아가 진출 이후에는 기업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 펀드 개설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더해 아주IB투자는 1조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중소, 벤처 기업에 공급하고, 국내 벤처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 제휴를 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투자 행보를 선보이며, 벤처 산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왔다는 평을 받았다.

아주IB투자 김지원 대표는 수상의 영광을 임직원 앞으로 돌리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주IB투자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주IB투자



## 아주산업,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수상

"아주산업 각 사업장에서는 꾸준한 품질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술연구소에서는 매달 원·부자재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며 최고의 콘크리트를 만들고자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이는 저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아주 건자재 전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일궈낸 체거입니다."

— 아주산업 인천사업소 이승현 팀장

아주산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최한 '제26회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품질 부문 일반부 2위를 차지해 2019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했다.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 배합의 물성과 굳고 난 뒤의 강도, 두 가지 부문을 엄정하게 평가해 콘크리트의 품질, 기술력, 안정성을 검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199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총 61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아주산업은 인천사업소 혼화제팀 이승현 팀장, 아주기술연구소 콘크리트 연구팀 최병걸 매니저, 공정연구팀 박춘민 매니저로 팀을 꾸렸다. 이승현 팀장은 총 네 번의 대회 참가 경험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품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당일의 기온, 습도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는 대회 컨디션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아주산업은 오랜 연구 개발 노하우,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회 준비에 성실히 임했다. 대회 당일, 이 팀장의 예측대로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해 아주 콘크리트만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입증했다. 수상의 기쁨에 지나치게 들뜨기보다는 앞으로도 건자재 구성원들과 머리를 모아 최고의 콘크리트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전하며 각자의 현장으로 복귀한 이들. 멈추지 않고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반드시 1등 콘크리트의 저력을 증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주산업



## 신규입사자 환영 행사, Welcome to AJU, AJU-IN

2019년 12월 20일 한 해 동안 아주 각 계열사에 입사한 신규입사자 75명을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다. 과거에는 신규입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주 알리는 교육의 자리였다면, 2019년부터는 한 가족이 되어준 인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환대의 자리로 분위기를 바꾸어 더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명사 특강, 각 계열사 대표와의 소통의 시간을 함께하며 신규입사자들은 아주 특유의 기쁨과 긍정의 정신을 공유하고 아주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아주



## 혁신 사례를 공유하다, ANT 페스티벌

2019년 12월 20일 아주산업은 ANT 경영 도입 후 처음으로 '2019 ANT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ANT 경영 정신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총 2부로 진행한 행사에서 8명의 매니저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한 사례를 공유했으며 2020년에도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다짐했다.

아주산업



## 뉴욕 호텔 두 곳 인수,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아주호텔앤리조트가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호텔 두 곳을 매입했다. 하얏트 플레이트 뉴욕과 하얏트 헤럴드 스퀘어 호텔은 뉴욕 내에서도 좋은 입지와 운영 안정성을 인정받는 곳. 이번 뉴욕 진출을 계기로 국내뿐 아니라 뉴욕, 워싱턴DC, 산호세, 시애틀의 객실을 투자·운영하게 된 아주호텔앤리조트는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뉴욕의 특성에 주목해 문화적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투자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주호텔앤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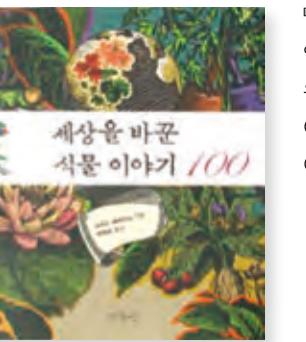
## 꽃처럼 피어나는 우리 삶의 에너지, 2020 아주 캘린더

매년 따뜻한 감성으로 일상에 예술 작품을 더해온 아주 캘린더가 2020년에는 구본창 작가의 사진 작품과 함께한다. 경자년庚子年 흰 쥐의 해, 꽃처럼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 'Still Alive' 시리즈는 우리의 매일에 부드러운 활력과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득 채워 넣는다. 더불어 2020 아주 캘린더는 기존의 세로 형태에서 260 × 190mm의 가로 판형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여백이 만드는 여유와 따스한 안정감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아주

# SPECIAL GIFT

『아주좋은날』 2020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상을 바꾼 식물 이야기 100』  
인기 TV 프로그램 진행자이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실생활에서 익숙한 100가지 식물에 얹힌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세계사와 함께 소개한다.



**1**

##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롭고 상상이 넘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곤 합니다. 2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한 경험담과 다채로운 이미지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컬러링 북, 세계사와 얹힌 흥미진진한 식물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는 이야기를 담은 애플트리태일즈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내 밤대로 유럽여행』  
어학연수로 시작한 외국 여행을 20여 년  
가까이 해온 베테랑 여행자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토대로 '공부도 하고  
여행도 즐기는 일석이조 여행법'을 사진과  
에세이로 풀어냈다.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서 상대 혹은 나를 탓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33가지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본다.

『상상으로 만나는 FACES COLORING BOOK』  
숨 가쁜 일상에서 빠져나와 숨 고르기 모드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컬러링 북이다.  
환상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가 현실 공간의 나를  
상상 속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옮겨놓는다.



**2**  
오늘과 다른 내일,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는 생기가 돌죠.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3**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reader's story

지난 호 'insight'에서 만난 두 사람,  
피아졸라와 성경린. 사실 피아졸라가 더 친숙한  
느낌이라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발전시킨 분은 모르고  
남의 것을 더 잘 알아서. 성경린이 밝힌 우리의 음악은  
이제 국악을 넘어 퓨전을 거쳐 새로운 우리 음악의  
역사를 쓰고 있으니 그의 노력과 열정은  
곧 우리 음악의 미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너무나 다른,  
그렇지만 너무도 닮은 두 거장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ymind20 님